

질문을 걸어오는 詩問集 : 어른됨을

# 다시, 묻다

질문술사 박영준 묻고 쓰다





다시, 묻다 - 추천사 모음집

## ‘다시, 묻다’는 어떤 책인가?

Why Not?

왜 저자가 자기책 추천사를 쓰면 안될까?  
왜 유명한 사람이 쓴 추천사만 받아야 할까?





## 벗이여, 이것은 책이 아니다

1.

벗이여!

이 책은 답이 아니다

이 책을 펼쳐든 사람은  
질문에 머물러 살아가는  
이상한 인간을 만나게 되리라

벗이여!

이 책은 시집이 아니다

시인이 되다만 이웃집 아저씨가,  
불혹에 접어들고도 여전히 흔들리는  
부끄러운 자기고백의 짧은 기록일 뿐이다

벗이여!

이것은 책도 아니다

이 책을 펼쳐든 사람에게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자신의 삶과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희망찬 슬픔의 노래다

벗이여!  
이것은 질문도 아니다

텅빈 공간에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이야기와 사유를 끄적여야 온전해지는

미완성의 빈칸 노트다

2.

답도 없고  
시집도 아닌  
책 같지도 않은  
이상한 책이지만  
벗이여,

만남을 선물하는  
책이 되길 바라며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다  
벗이여,

어떤 인간을 담을지는  
부족한 작가의 몫이겠지만,

이 책을 통해  
어떤 인간을 만날지는  
독자 그대의 몫이다.  
벗이여!

### 詩足

제가 끄적인 이 책은 '혼자 읽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한 인간과 만나고 있냐'는 성찰적 물음입니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작가인 저를 만나도 좋고, 독자 자신을 만나도 좋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 좋습니다. 벗들이 먼저 읽고 보내온 정성스런 추천사들을 첨부합니다.

저는 이 책에 저의 벗들의 목소리도 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인간을 담을지는 작가의 몫이었고, 어떤 인간을 만날지는 독자인 당신의 몫입니다. 이 책을 통해 '소중한 인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 수락산 자락에서

마흔된 질문술사가 스스로에게 묻고,  
벗들과 함께 추천사를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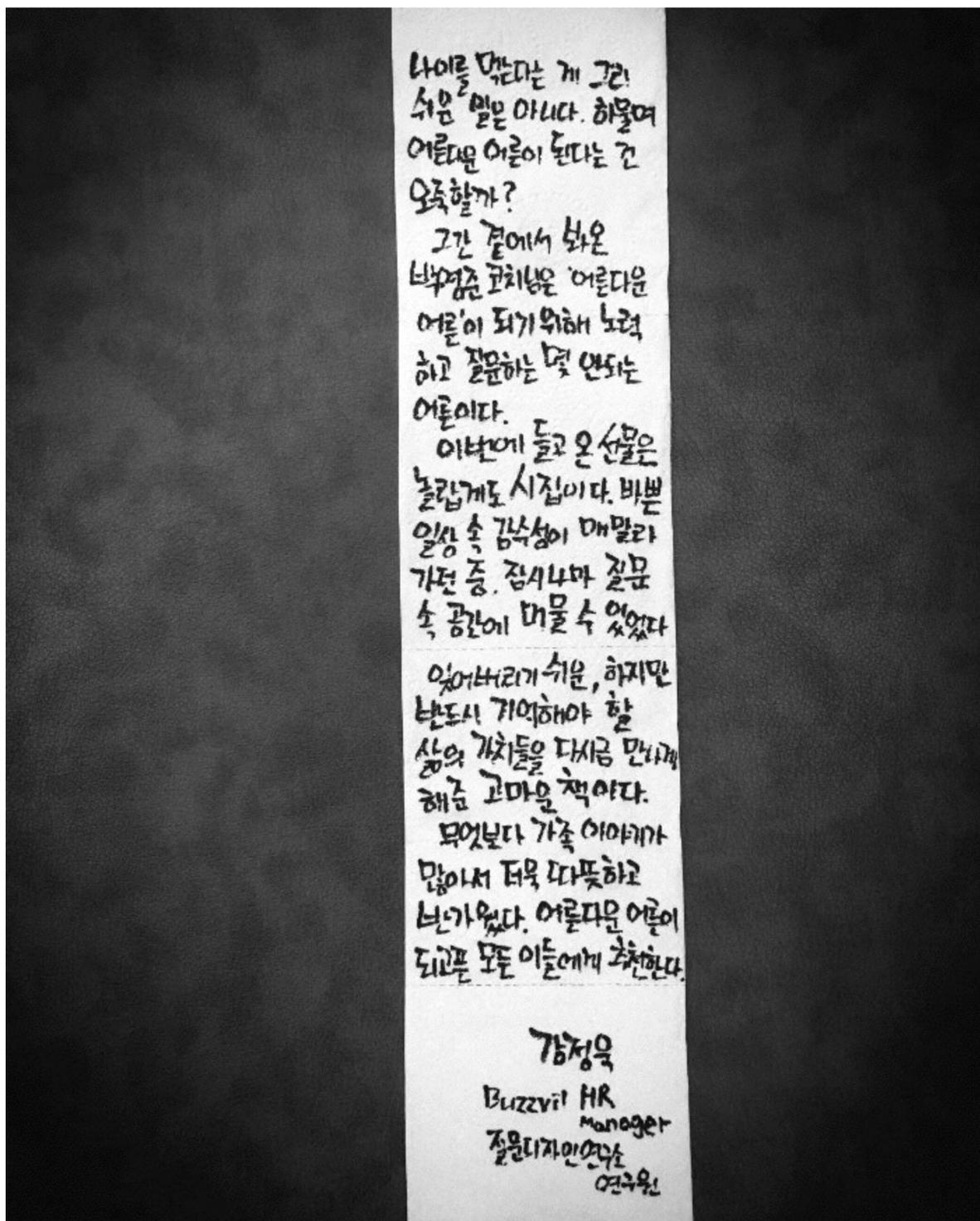




강정욱 \_ Buzzvil HR Manager, 질문디자인연구소 이사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어른다운 어른이 된다는 건 오죽할까? 그간 곁에서 봐온 박영준 코치님은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질문하는 몇 안되는 어른이다.

이번에 들고 온 선물은 (놀랍게도) 시집이다. 바쁜 일상 속 감수성이 매말라가던 중, 잠시나마 질문 속 공간에 머물 수 있었다. 잊어버리기 쉬운,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가치들을 다시금 만나게 해준 고마운 책이다. 무엇보다 가족 이야기가 많아서 더욱 따뜻하고 반가웠다.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픈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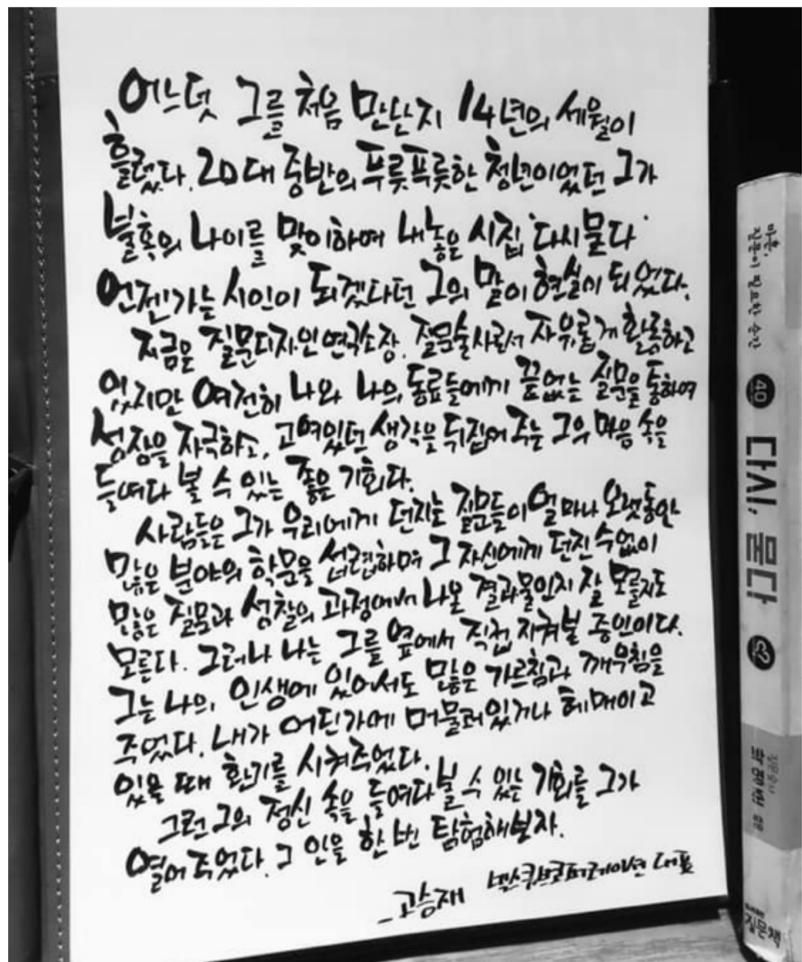
### 고승재 \_ 넥스큐브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어느덧 그를 처음 만난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20대 중반의 푸릇푸릇한 청년이었던 그가 불혹의 나이를 맞이하여 내놓은 시집 '다시 묻다'. 언젠가는 시인이 되겠다던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지금은 질문디자인연구소장, 질문술사로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와 나의 동료들에게 끝없는 질문을 통하여 성장을 자극하고, 고여있던 생각을 뒤집어 주는 그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람들은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분야의 학문을 섭렵하며 그 자신에게 던진 수없이 많은 질문과 성찰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지 잘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를 옆에서 직접 지켜본 증인이다. 그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었다. 내가 어딘가에 머물러있거나 헤매이고 있을 때 환기를 시켜주었다.

그런 그의 정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열어주었다. 그 안을 한 번 탐험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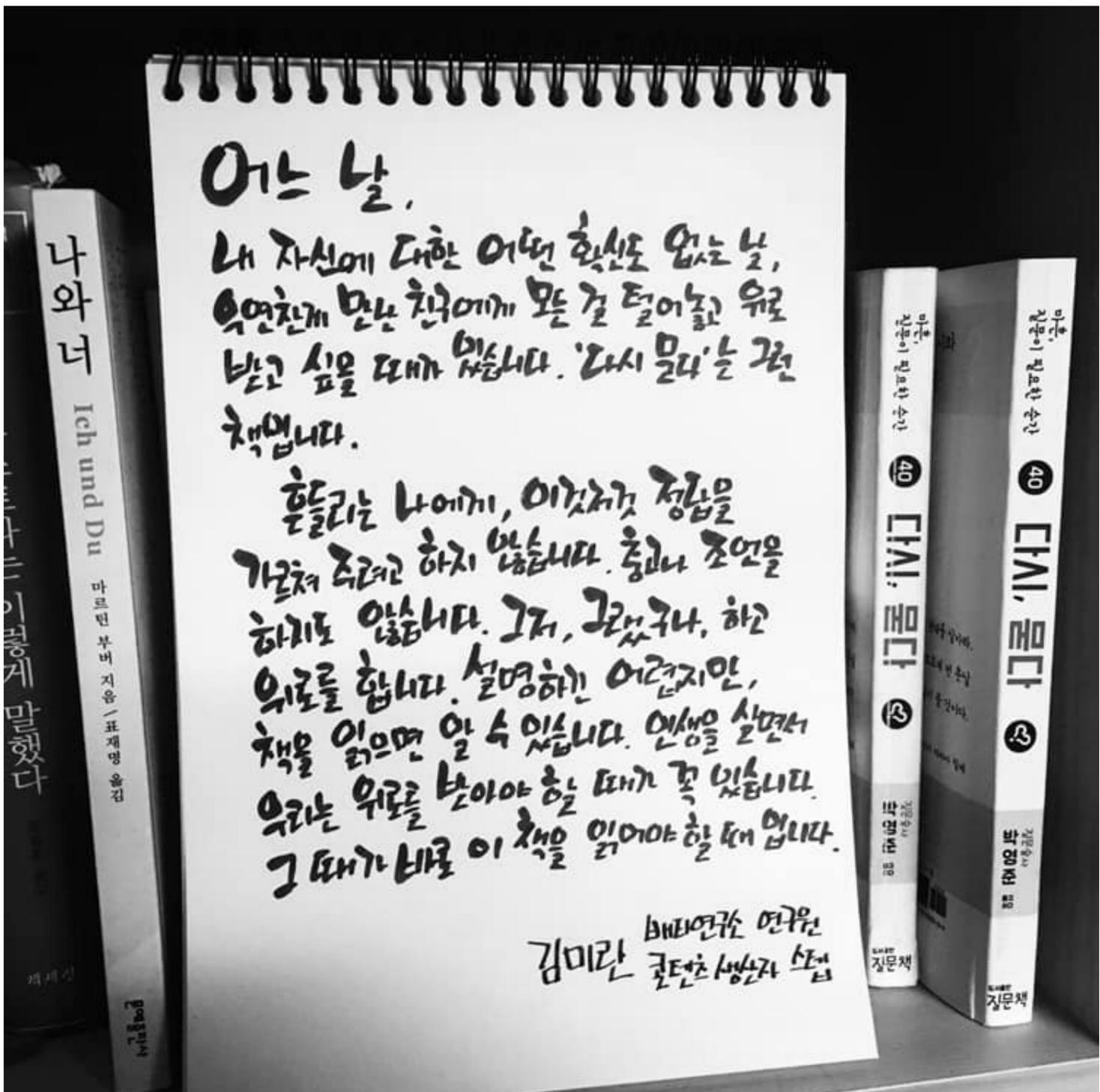


김미란 \_ 배티연구소 연구원, 콘텐츠 생산자

어느 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날, 우연찮게 만난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묻다'는 그런 책입니다.

흔들리는 나에게, 이것이라며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고나 조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하고 위로를 합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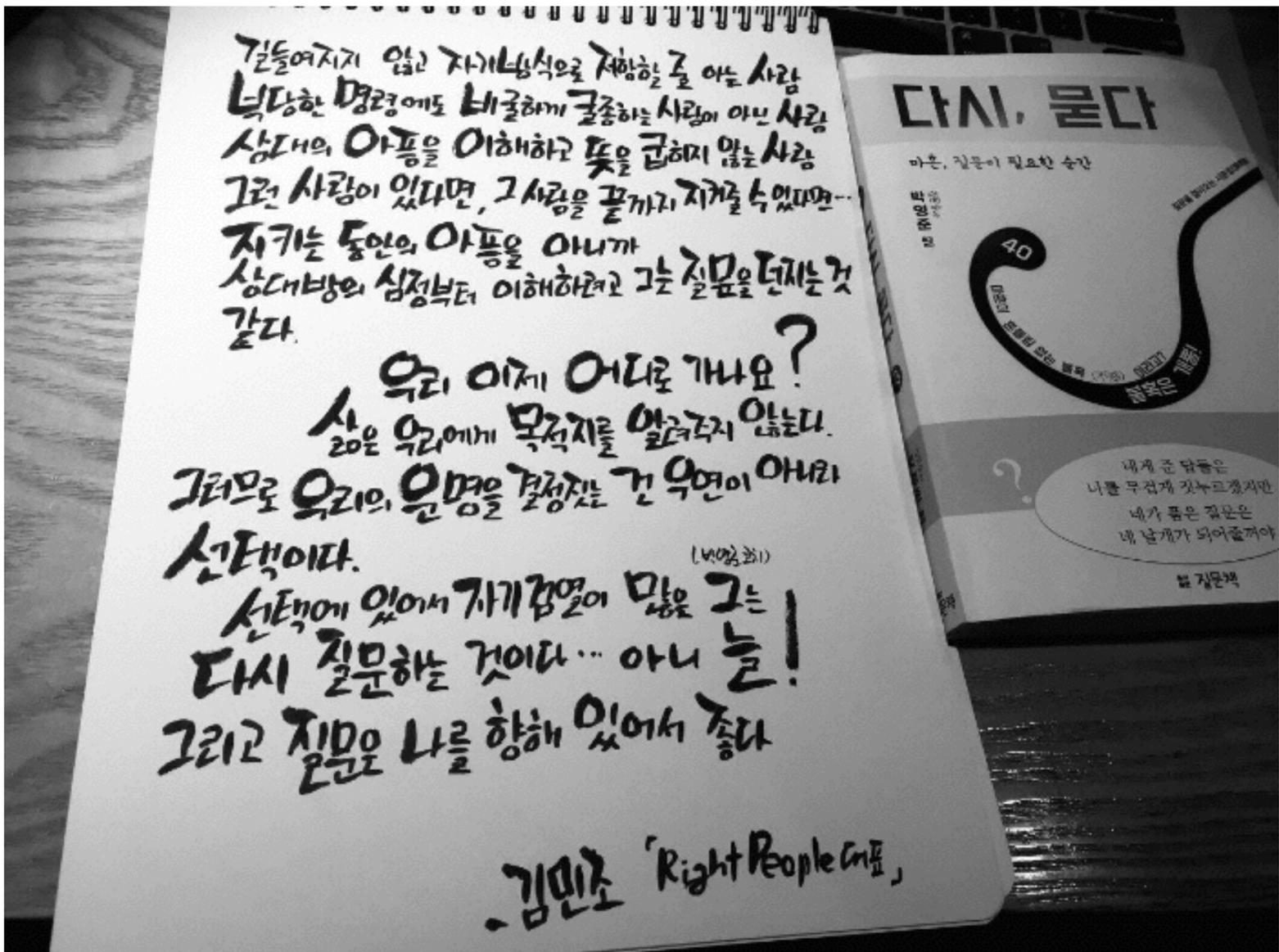
김민조 \_ (주)RightPeople 대표

[마흔에 다시 묻다] 한가지 기술을 끝까지 파고들어 본 사람은 기술과 경영에 본질적으로 통하는 것이 많다고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점이 그렇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겠지만, 시간과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만 한다. 또 어느 쪽이든 방향을 압축해야만 할 때가 온다.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온전히 힘을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결단력과 함께 식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지식인을 좋아한다. 늘 배우고 익히며 하나의 기술을 끝까지 추구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질문한다. 스스로에게...

그런 면에서 박영준코치는 하나의 기술을 끝까지 추구해 본, 추구하는 지식인인 것 같다.

살면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던 때가 참 많았었다. 그럴때마다 이 세상에 영킨거 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방식으로 저항할 줄 아는 사람. 부당한 명령에도 비굴하게 굴종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면... 지키는 동안의 아픔을 아니까 상대방의 심정부터 이해하려고 그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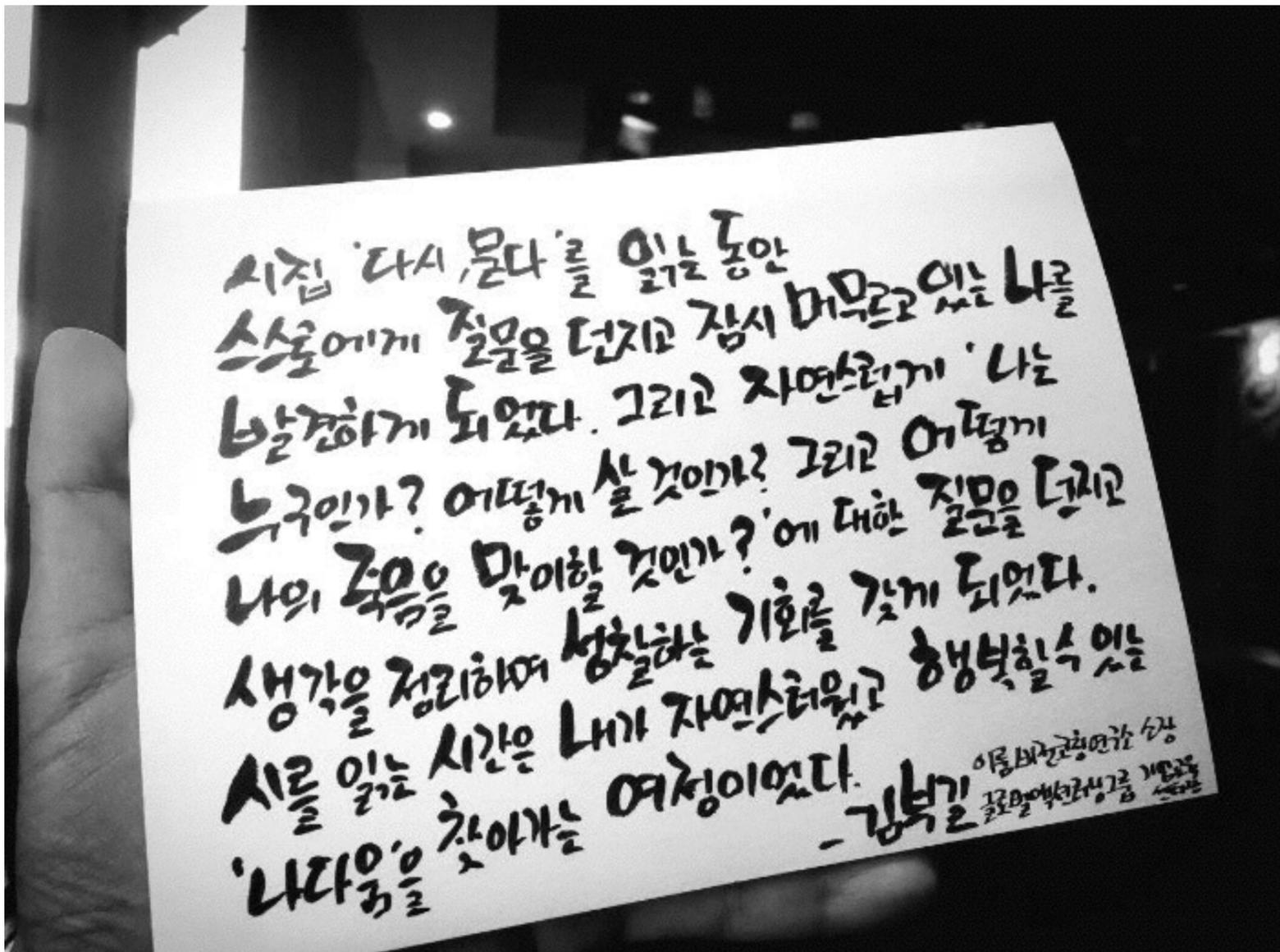
우리 이제 어디로 가나요? 삶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에 있어서 자기검열이 많은 그(박영준코치)는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아니 늘! 그리고 질문은 나를 향해 있어서 좋다.





김부길 \_ 이룸비전코칭연구소 소장, 글로벌액션러닝그룹 기업교육센터장

시집 '다시 묻다' 를 읽는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잠시 머무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정리하며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시를 읽는 시간은 내가 자연스러웠고 행복할 수 있는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김영휴 \_ SSecretWoman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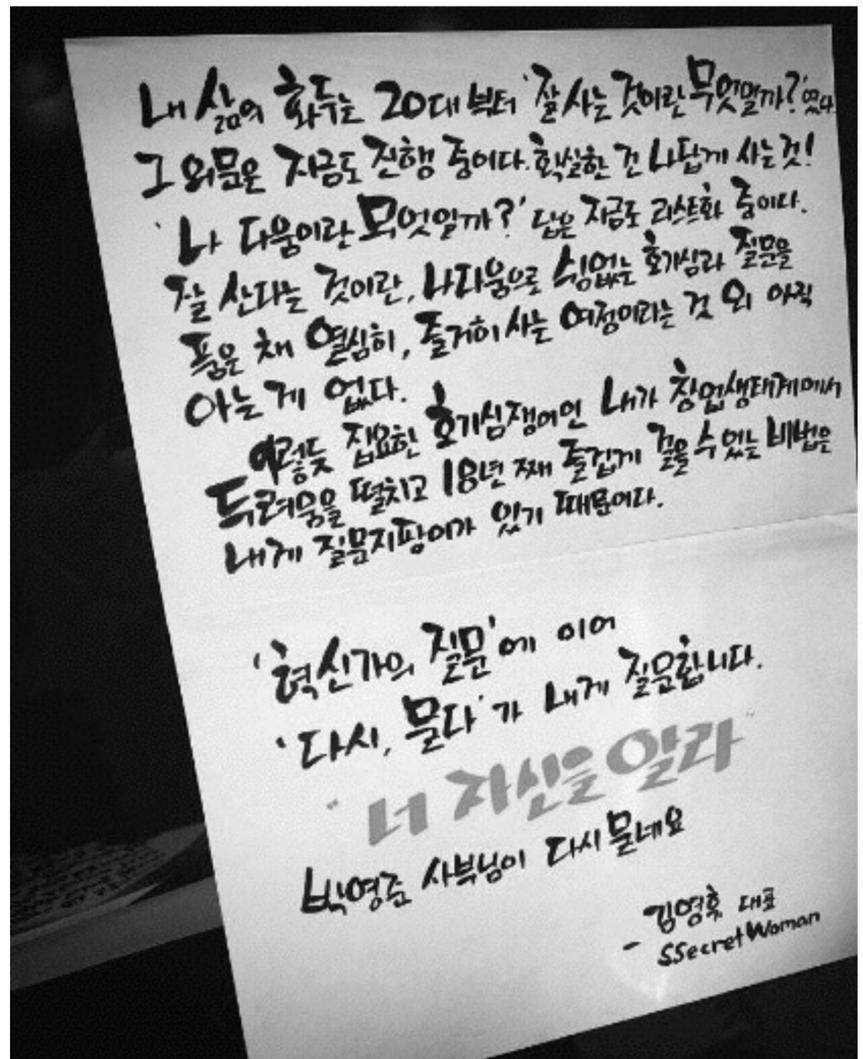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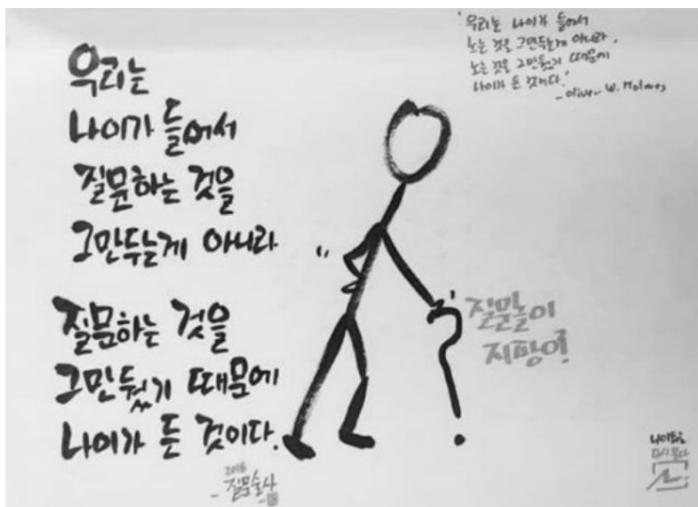
내 삶의 화두는 20 대부터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였다. 그 의문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확실한 건 나답게 사는 것! 나 다움이란 무엇일까 답은 지금도 리스트화 중이다.

잘 산다는 것이란,나다움으로 씬없는 호기심과 질문을 품은 채 열심히, 즐겁히 사는 여정이라는 것 외 아직 아는 게 없다. 이렇듯 집요한 호기심쟁이인 내가 창업생태계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18년 짜 즐겁게 걷을 수 있는 비법은 내게 질문지팡이가 있기 때문이다.

‘혁신가의 질문’ 이어 ‘다시 묻다’가 내게 질문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박영준 사부님이 다시 묻네요.





김이준 \_ 희망가득진로상담센터 대표

박영준의 시는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빠르게 해석해 내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늘 빠른 것 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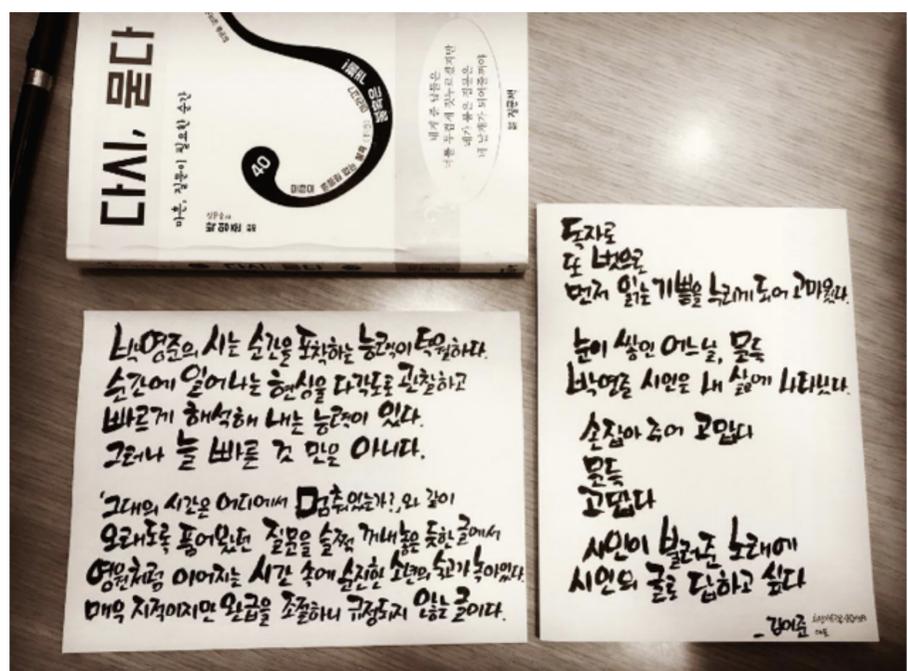
그대의 시간은 어디에서 멈춰있는가?와 같이  
오래도록 품어왔던 질문을 슬쩍 꺼내놓는 듯한 글에서는  
영원처럼 이어지는 시간 속에 순진한 소년의 숙고가 녹아있다.  
매우 지적이지만 완급을 조절하니 규정되지 않는 글이다.

독자로  
또 벗으로  
먼저 읽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고맙다.

눈이 쌓인 어느날, 문득  
박영준 시인은 내 삶에 나타났다

손잡아 주어 고맙다.  
문득  
고맙다.

시인이 불러준 노래에  
시인의 글로 답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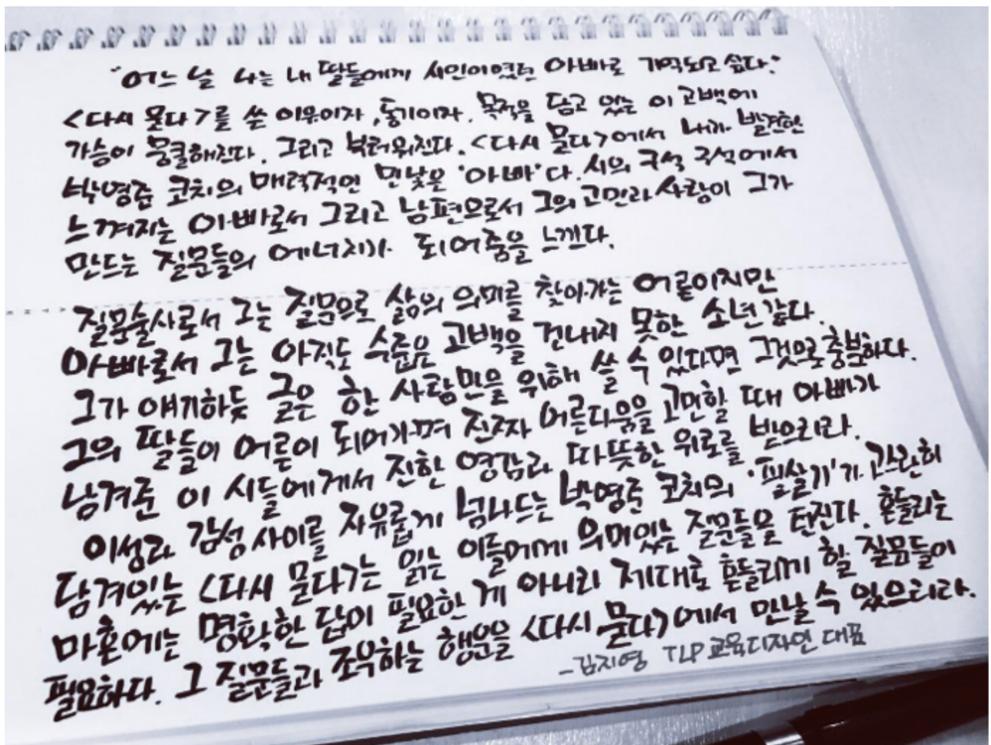
김지영 \_ TLP 교육 디자인 연구소 대표, 질문디자인연구소 이사

“어느 날 나는 내 딸들에게 시인이었던 아바로 기억되고 싶다.”

〈다시, 묻다〉를 쓴 이유이자, 동기이자, 목적을 담고 있는 이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리고 부러워진다. 〈다시, 묻다〉에서 내가 발견한 박영준 코치의 매력적인 민낯은 ‘아빠’다. 시의 구석 구석에서 느껴지는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의 고민과 사랑이 그가 만드는 질문들의 에너지가 되어줌을 느낀다.

질문술사로서 그는 질문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어른이지만 아빠로서 그는 아직도 수줍은 고백을 건네지 못한 소년 같다. 그가 얘기 하듯 글은 한 사람만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딸들이 어른이 되어가며 진짜 어른다움을 고민할 때 아빠가 남겨준 이 시들에게서 진한 영감과 따뜻한 위로를 받으리라.

이성과 감성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박영준 코치의 ‘필살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다시, 묻다〉는 읽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 흔들리는 마흔에는 명확한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흔들리게 할 질문이 필요하다. 그 질문들과 조우하는 행운을 〈다시, 묻다〉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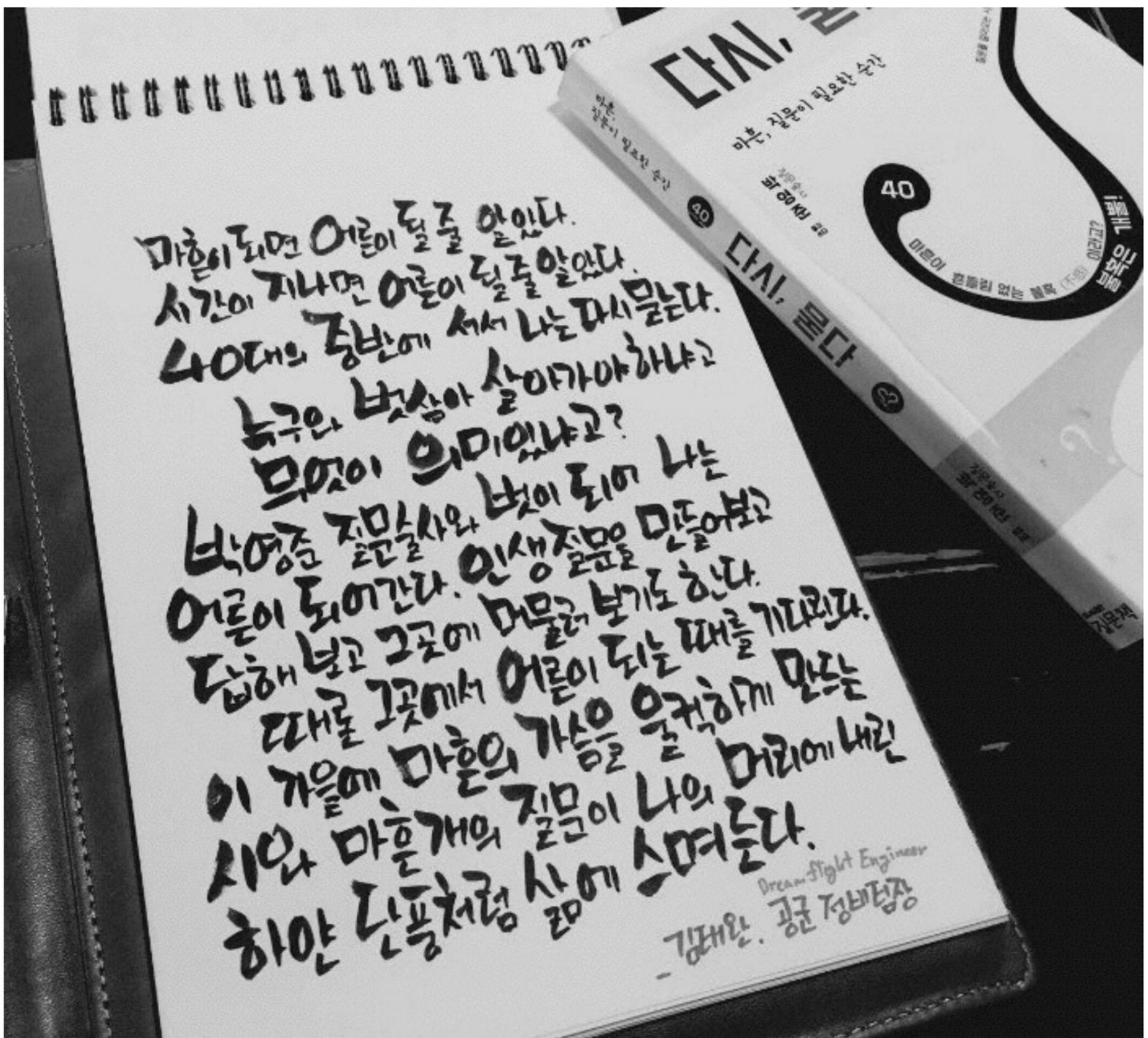


김태완 \_ 공군 정비팀장, Dream Flight Engineer

마흔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 40대의 중반에 서서 나는 다시 묻는다. 누구와 벗삼아 살아가야 하냐고 무엇이 의미있냐고?

박영준 질문술사와 벗이 되어 나는 어른이 되어간다. 인생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고 그곳에 머물러 보기도 한다. 때론 그곳에서 어른이 되는 때를 기다린다.

이 가을에 마흔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시와 마흔개의 질문이 나의 머리에 내린 하얀 단풍처럼 삶에 스며든다.





## 남상은 \_ Miracle C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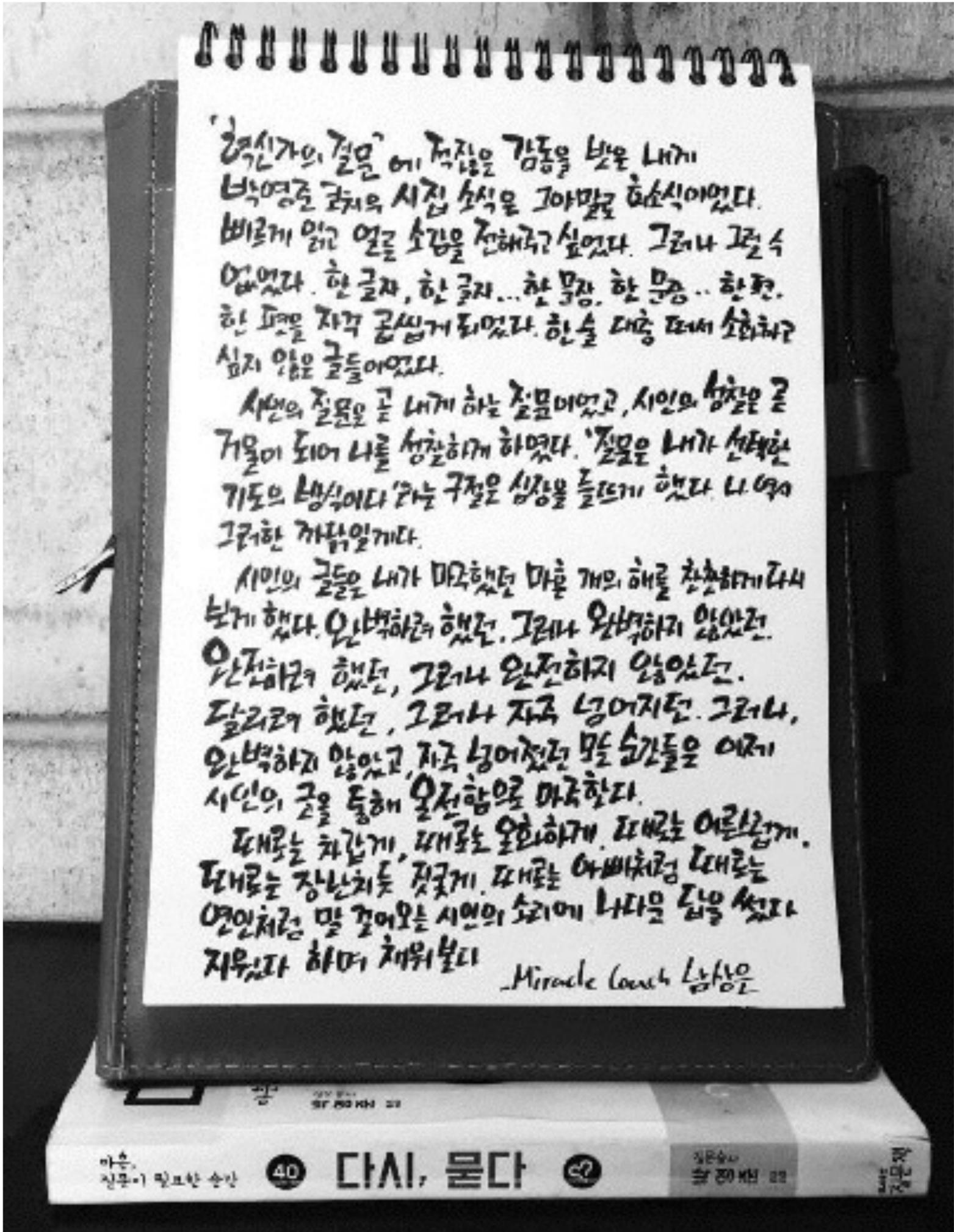
‘혁신가의 질문’에 적잖은 감동을 받은 내게 박영준 코치의 시집 소식은 그야말로 희소식이었다. 빠르게 읽고 얼른 소감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한 글자, 한 글자..한 문장, 한 문장..한 편, 한 편을 자꾸 곱씹게 되었다. 한 술 대충 떠서 소화하고 싶지 않은 글들이었다.

시인의 질문은 곧 내게 하는 질문이었고, 시인의 성찰은 곧 거울이 되어 나를 성찰하게 하였다. '질문은 내가 선택한 기도의 방식이다'라는 구절은 심장을 들뜨게 했다. 나 역시 그러한 까닭일게다.

시인의 글들은 내가 마주했던 마흔 개의 해를 찬찬하게 다시 보게 했다.

완벽하려 했던,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던.  
완전하려 했던,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던.  
달리려 했던, 그러나 자주 넘어지던.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고, 자주 넘어졌던 모든 순간들은  
이제 시인의 글을 통해 온전함으로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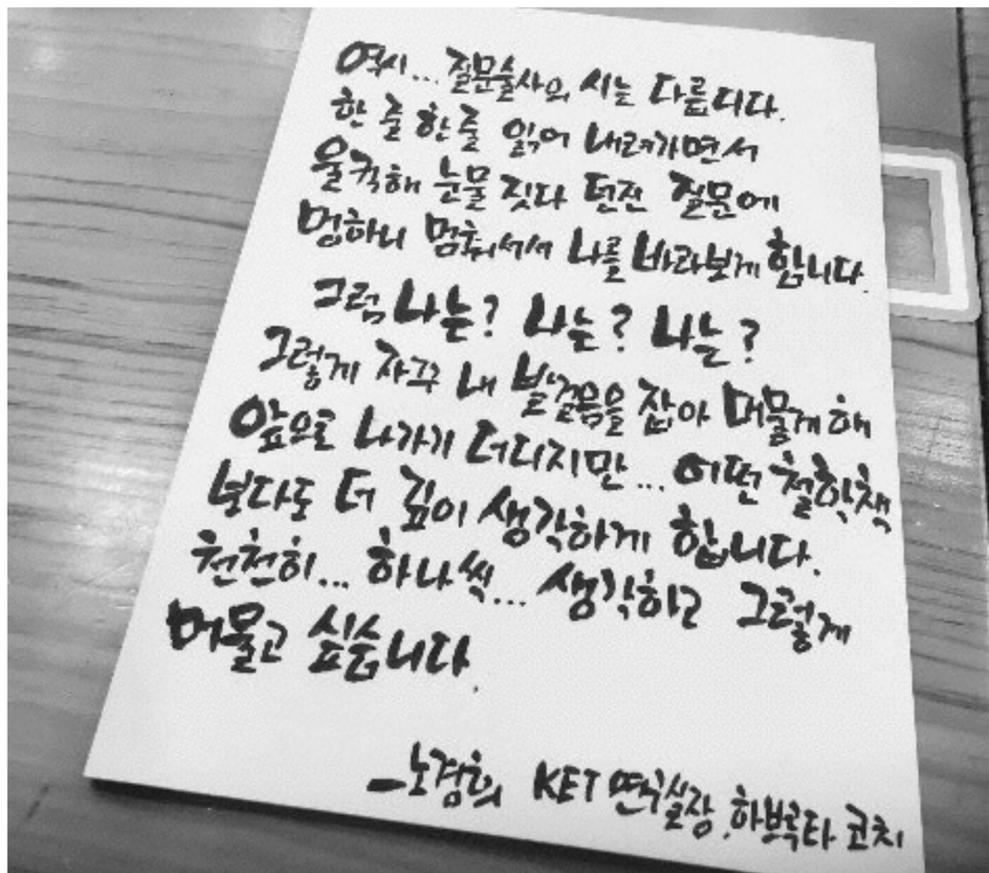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어른스럽게, 때로는 장난치듯 짓궂게.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말 걸어오는 시인의 소리에.  
나다운 답을 썼다 지웠다 하며 채워본다.





## 노경희 \_ 하브루타 전문강사

역시,,,질문술사의 시는 다르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울  
 킃해 눈물 짓다 던진 질문에 멍하니 멈춰서서 잠시 나를 바라보게 합  
 니다. 그럼 나는? 나는? 나는? 그렇게 자꾸 내 발걸음을 잡아 머물게  
 해 앞으로 나가기 더디지만... 어떤 철학책 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생각하고 그렇게 머물고 싶습니다.



PS. 박영준 코치님

왜 시가 자꾸 아프게 다가 올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나이 마흔일때도 참 많  
 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마흔이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막연히 40대의  
 삶을 기대했었는데 정작 마흔이 되고 보니 아이는 어리고, 불안정한 경기에 남편은  
 늘 긴장상태이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는 내 이름은 없고... 환상이 있었나봐요.  
 공자님의 불혹이란 말에... 40대 중반부터 다시 시작한 일로 정말 바쁘게 내 감정  
 도 내 상태도 추스르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 아침에 코치님의 시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자꾸 자꾸...눈물이 납니다. 내 이야기 같아서고... 내 동생 이야기  
 같아서.. 내 친구 이야기 같아서...

고맙습니다. 좋은 글, 좋은 질문 주셔서... 늘 응원드리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잠  
 시 기도 드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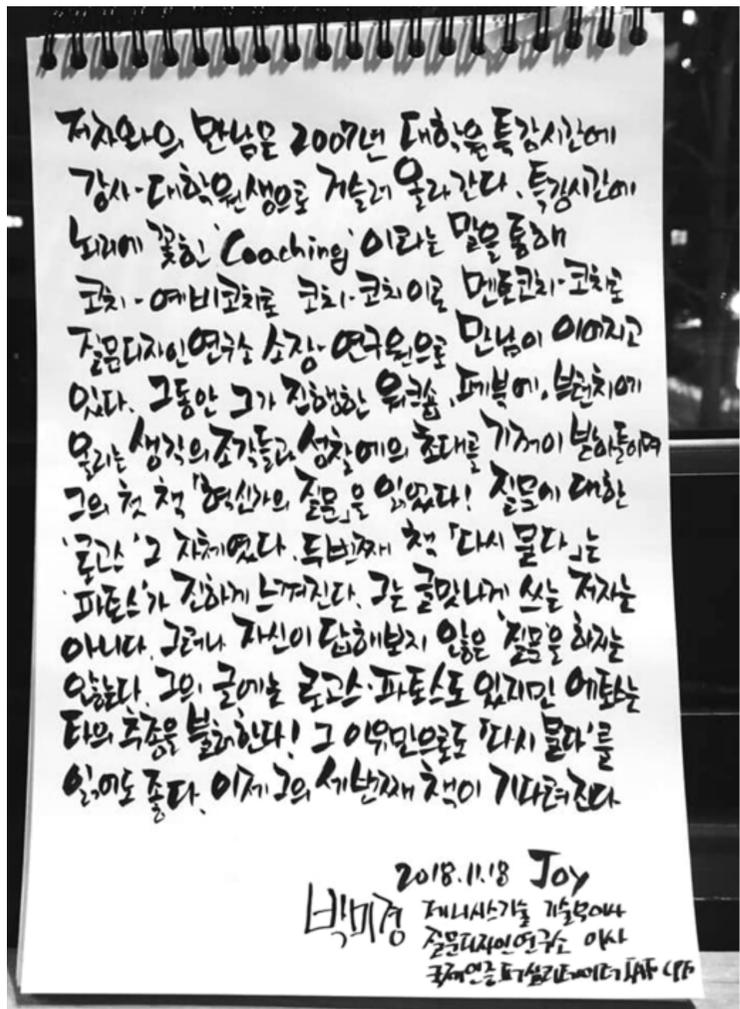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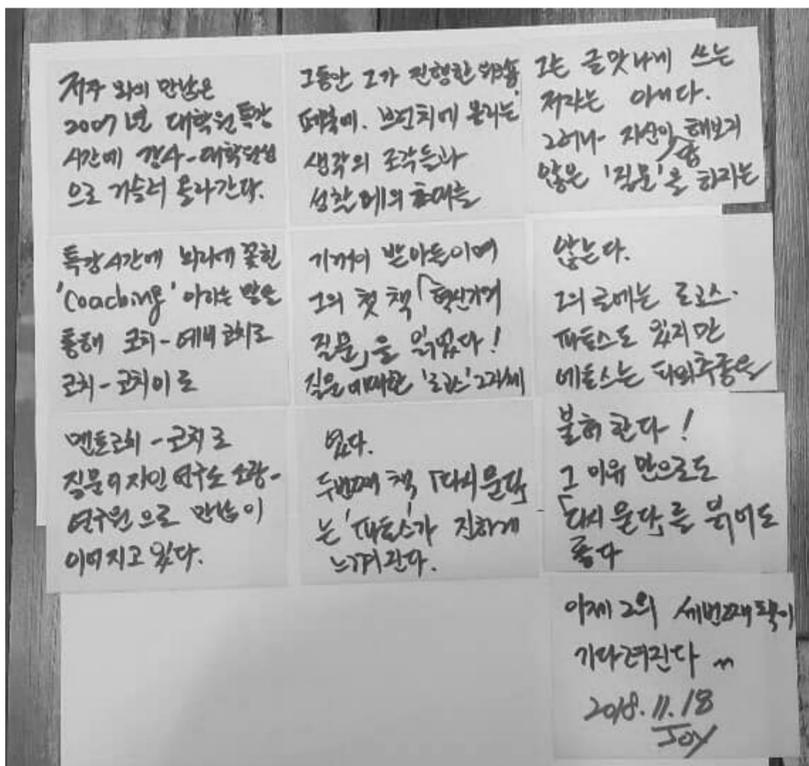


박미경 \_ 제니스스기술 이사, IAF CPF, 질문디자인연구소 이사

저자와의 만남은 2007년 대학원 특강시간에 강사-대학원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강시간에 뇌리에 꽂힌 'Coaching'이라는 말을 통해 코치-예비코치로, 코치-코치이로, 멘토코치-코치로, 질문디자인연구소장-연구원으로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그가 진행한 워크숍, 폐북에, 브런치에 올리는 생각의 조각들과 성찰에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의 첫 책 [혁신가의 질문]을 읽었다! 질문에 대한 '로고스' 그 자체였다. 두번째 책 [다시 묻다]는 '파토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그는 글맛나게 쓰는 저자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답해보지 않은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 그의 글에는 로고스, 파토스도 있지만 '에토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이유만으로도 [다시 묻다]를 읽어도 좋다. 이제 그의 세 번째 책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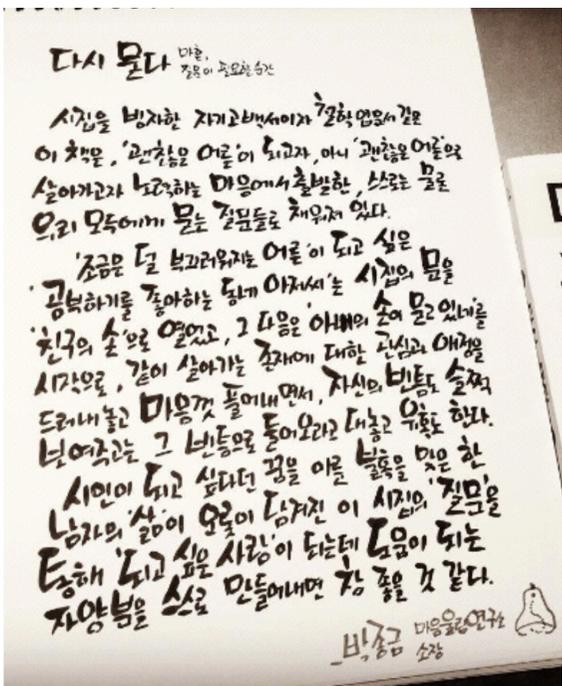
박종금 \_ 마음올림연구소 소장

다시, 묻다. 마흔 질문이 필요한 순간

시집을 빙자한 자기고백서이자 철학입문서 같은 이 책은, ‘괜찮은 어른’이 되고자, 아니 ‘괜찮은 어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스스로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들로 채워져 있다.

‘조금은 덜 부끄러워지는 어른’이 되고 싶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는 시집의 문을 ‘친구의 손’으로 열었고, 그 다음은 ‘아내의 손이 묻고 있네’를 시작으로, 같이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놓고 마음껏 풀어내면서, 자신의 빈틈도 슬쩍 보여주고는 그 빈틈으로 들어오라고 내놓고 유혹도 한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룬 불혹을 맞은 한 남자의 ‘삶’이 오롯이 담겨진 이 시집의 ‘질문’을 통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자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다.



박종금 소장님의 그림 선물  
: 바람 부는 날의 질문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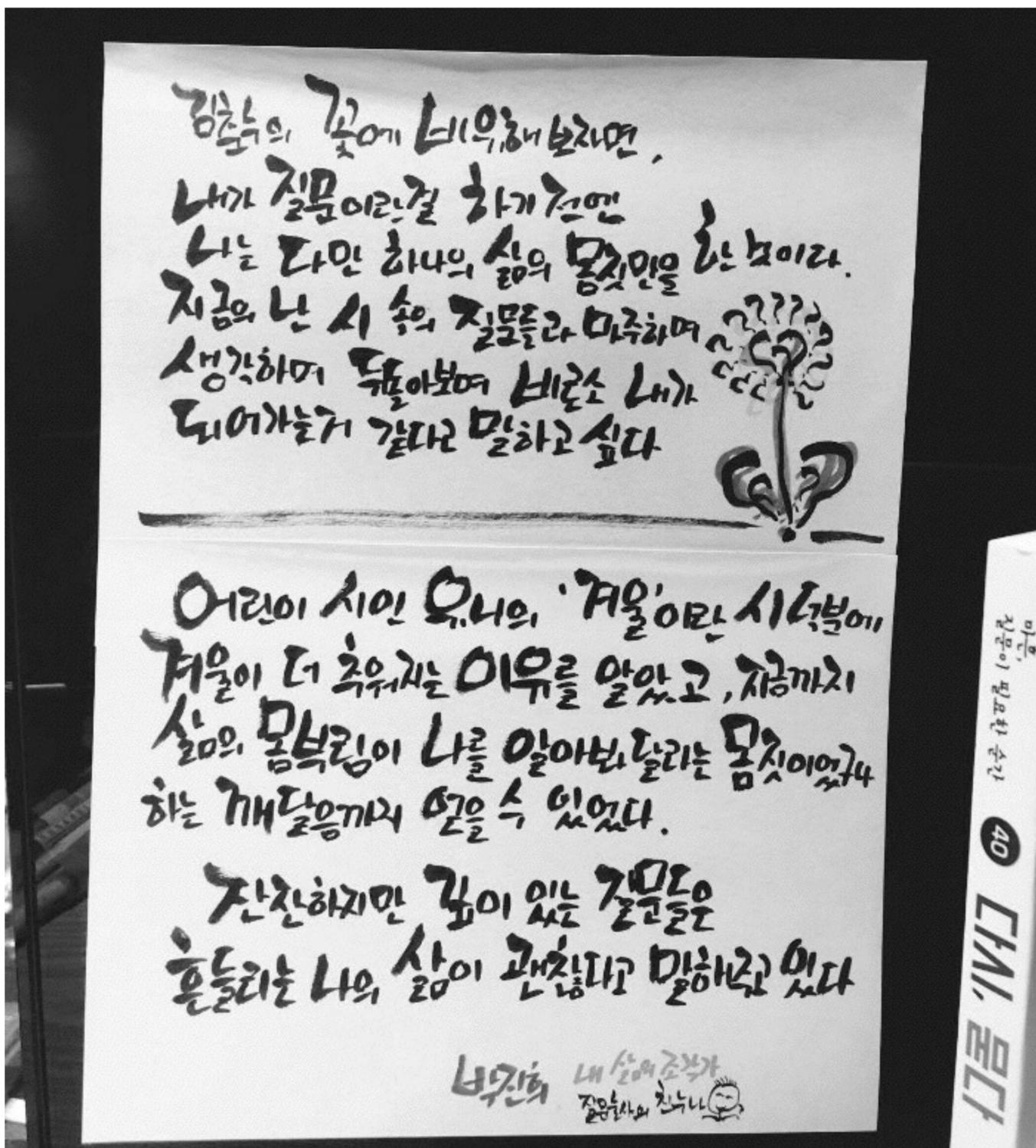


(퍼머 스타일을 즐기는 동네 아저씨 가끔은 아줌마 같은)



박진희 \_ 내 삶의 조각가

김춘수의 시 꽃에 비유해보면, 내가 질문이란걸 하기 전엔 나는 다만 하나의 삶의 몸짓만을 한것이다. 지금의 난 시 속의 질문들과 마주하며 생각하며 뒤돌아보며 비로소 내가 되어가는거 같다고 말하고 싶다. 어린이 시인 유니(둘째의 애칭입니다)의 '겨울'이란 시 덕분에 겨울이 더 추워지는 이유를 알았고, 지금까지 삶의 몸부림이 나를 알아봐달라는 몸짓이었구나하는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었다.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들은 흔들리는 나의 삶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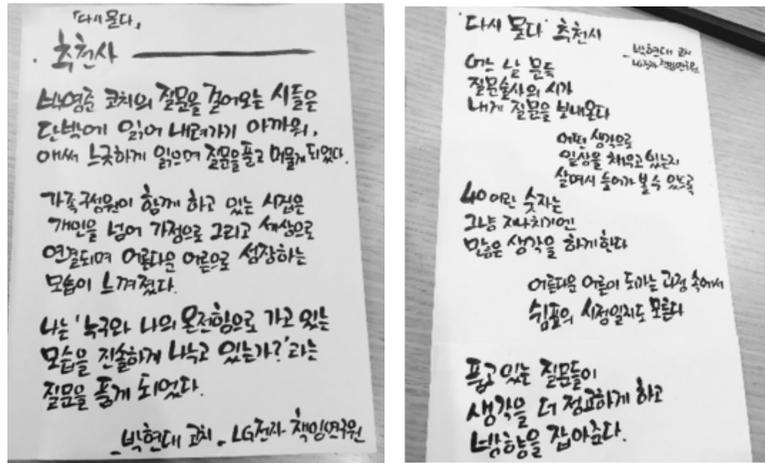




박현대 \_ 코치, LG전자 책임연구원

영준 코치님의 질문을 걸어오는 시들은 단박에 읽어 내려가기엔 아까워, 애써 느긋하게 읽으며 질문을 품고 머물게 되었다. 나의 마흔은 이런 성찰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을 반성하며,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고 있는 시집은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연결되며 어른다운 어른으로 성장하고 계시는 모습이 느껴졌다. 나는 누구와 나의 온전함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진솔하게 나누고 있는가의 질문을 품게 되었다.

< 다시 묻다 추천사 >



어느 날 문득 질문술사님의 시가 내게 질문을 보내온다

어떤 생각으로 일상을 채우고 있는지  
살며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40이란 숫자는 그냥 지나치기엔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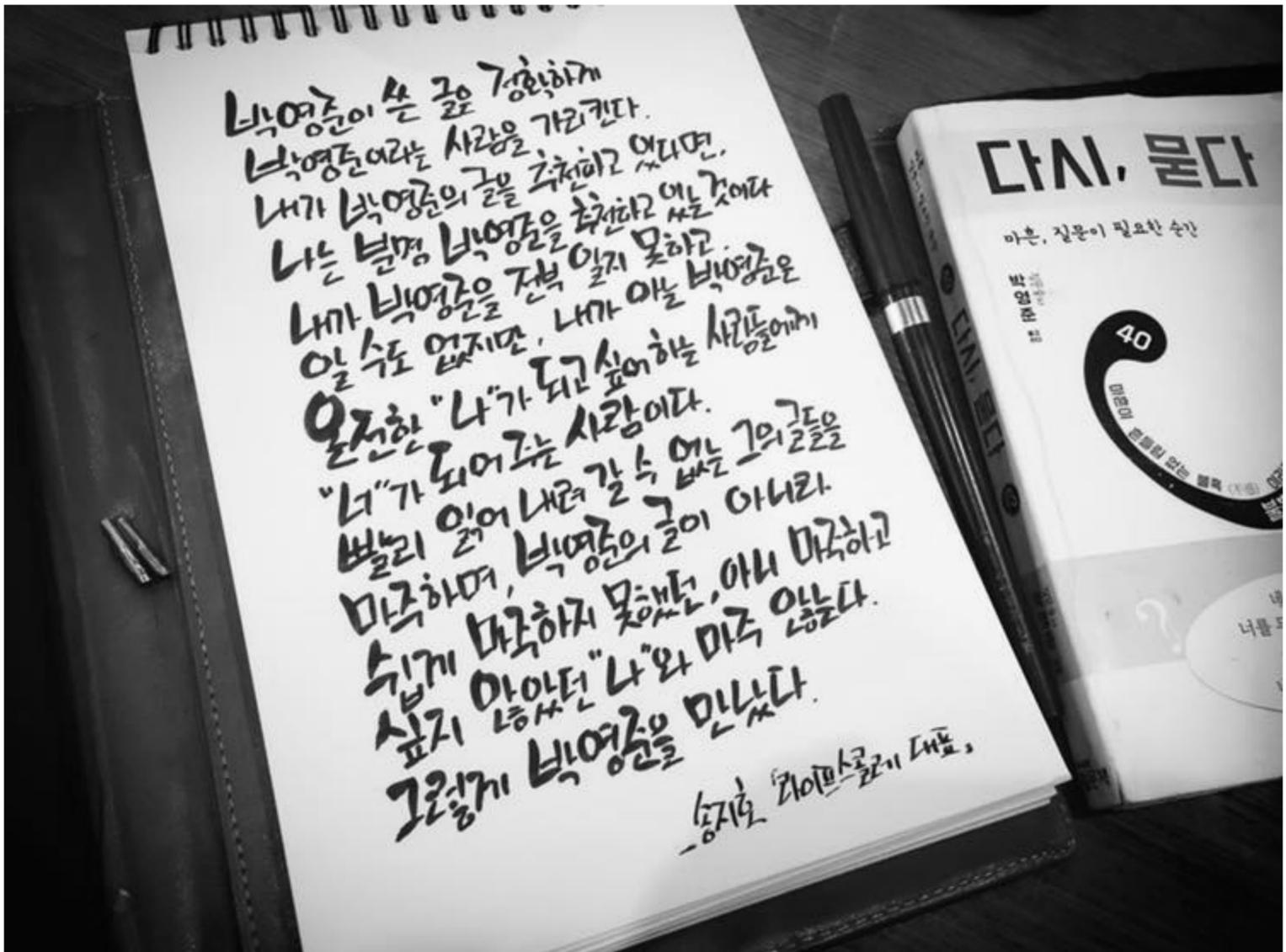
어른다운 어른이 되가는 과정 속에서  
쉽표의 시점일지도 모른다

품고 있는 질문들이  
생각을 더 정교하게 하고 방향을 잡아준다



송지호 \_ 라이프스콜레 대표

박영준이 쓴 글은 정확하게 박영준이라는 사람을 가리킨다. 내가 박영준의 글을 추천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 박영준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박영준을 전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내가 아는 박영준은 온전한 "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빨리 읽어 내려 갈 수 없는 그의 글들을 마주하며, 박영준의 글이 아니라 쉽게 마주하지 못했던, 아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와 마주 앉는다. 그렇게 박영준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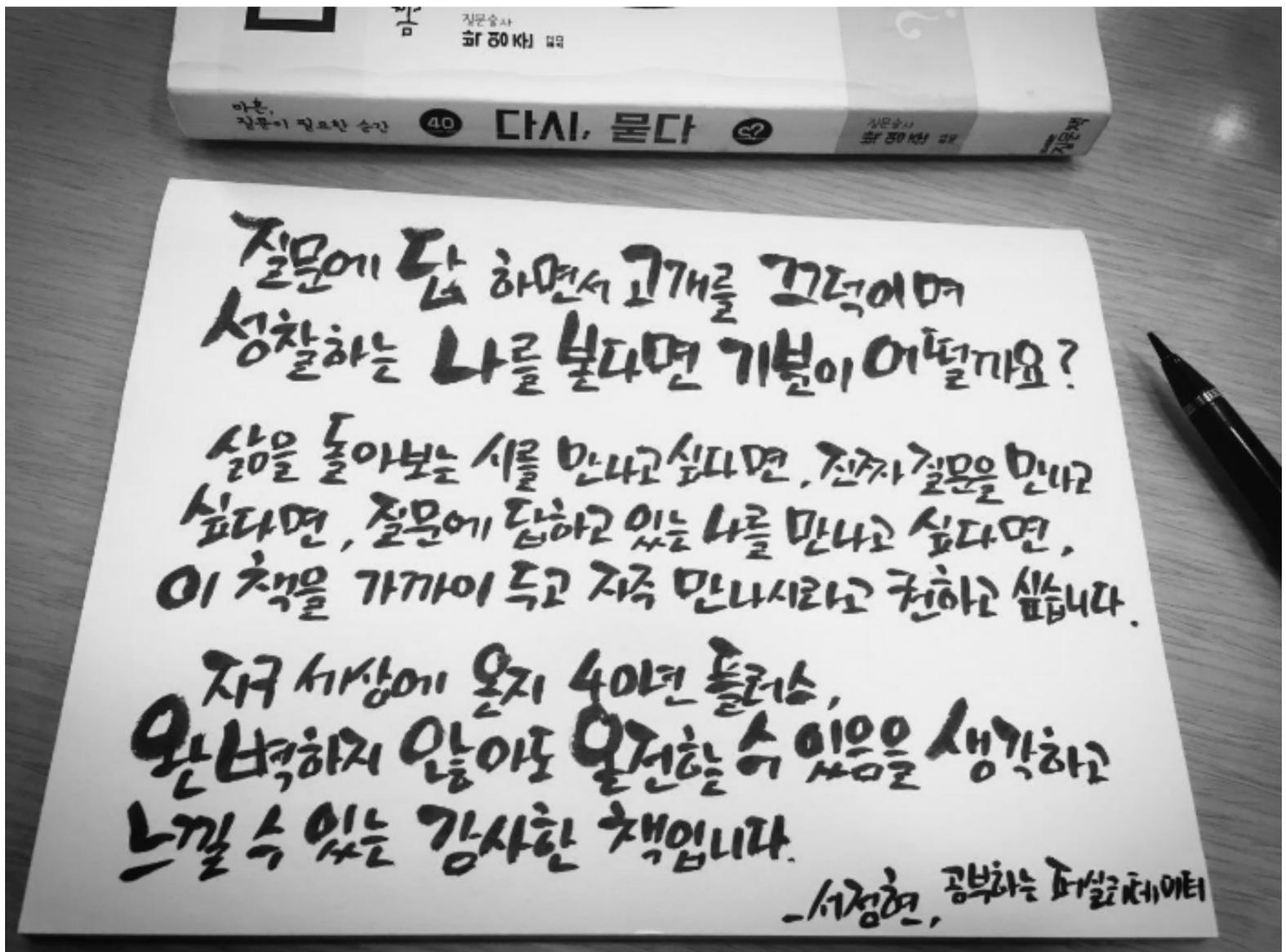


서정현 \_ 공부하는 퍼실리테이터, 행복성장연구소

질문에 답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성찰하는 나를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삶을 돌아보는 시를 만나고 싶다면,  
진짜 질문을 만나고 싶다면,  
질문에 답하고 있는 나를 만나고 싶다면,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구 세상에 온지 40년 플러스,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책입니다.





심윤수 \_ FocusArete Company 대표

“그래서 난 시작한다. 아니, 다시 묻는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질문은 필수적이다. 이것을 시작해도 되는가?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인가? 이 시작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끝에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박영준 소장님은 40세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것도 詩 라는 형태로 말이다. 40세 라는 나이는 어떤 이에게는 오고 어떤 이에게는 지나갔으며 어떤 이에게는 아직 먼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간혹 어떤 이에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나이이다.

40이라는 나이를 중국의 유학자 공자는 不惑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미혹함이 없음. 세상일의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림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의미다. 그렇게 중요한 나이인 40세를 나는 어떻게 맞이하였었나?

박영준소장님의 <마흔, 다시 묻다>라는 질문시집의 초판을 받으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다. 가끔은 세월의 흐름이 빠름에 개탄하였고 의식하지 않으려고 외면하기도 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신체의 늙어짐에 대해 탄식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후회의 연속이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지 못함에 대해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채웠다. 아니, 어찌보면 충분히 40세를 맞이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그림자가 묻다〉를 읽으며 머리가 멍해졌다.

그 그림자를 만든 것이  
자신의 밝음이란 것을  
언제쯤 알아차릴 것인가 빛은  
그림자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니

(중략)

그 그림자의 품에 숨어  
잠시 쉬어가는 이들도 있다는 걸  
언제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빛은  
쉽 없이 빠르기만 하구나

이 부분을 읽으며 나의 어두움을 늘 가리기 위해 급급했던 지난 날을 생각했다. 또 내 밝음이 지치고 있음을, 그로 인해 깊은 내면의 나는 간혹 그 어두움에 숨어 얇은 숨을 쉬며 휴식하여 왔음을 깨달았다. 삶이 가져다주는 일련의 고난 속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함께 해왔는가? 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였다. 이 책은 이런 책이다.

박영준 소장님은 스스로가 시에 대해 재능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누구보다 상대의 내면의 질문을 일깨우고 성장을 위한 성찰의 빛을 밝히는데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 재능을 마음껏 뽐낸 것이 바로 이 시집이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를 모두 알 것이다. 도둑은 왜 40인 이었을까? 30인, 400인, 혹은 100명이었을 수도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40이라는 숫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오랜 수행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은 나이이다.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다. 알리바바는 40인의 도둑들의 창고를 털며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 이제 왜 알리바바가 40인의 도둑을 맞닥뜨렸는지 알 것이다.

이제 나는 동양의 알리바바가 되어, 박영준 소장님의 시를 읽으며 이미 했어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성찰을 하며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 그의 나이는 이제 고작 40세이지만 이미 훌륭한 스승이다.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난 생각한다, 아니 다시 묻는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적이다. 이것을 시작하든 아니든 계속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이 시집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 그 끝에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얻을 것인가?

박영준 소장님의 40세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것을 들을 때는 흥분할 것이다. 40세라는 나이는 어떤 의미에는 영구적인 의미에는 지나갔지만 어떤 의미에는 아직 먼 길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의미에는 오지 않았으므로 있는 나이다.

40세라는 나이는 조금의 유혹과 공과는 주춤(주춤)이라는 기분으로 흔들린다. 미안함이 없음, 세상의 어떤까지 것들에 흔들림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중요한 나이라는 나이는 내가 어떻게 맞이하였을까?

박영준 소장님의 <다시, 묻다>라는 질문의 힘은 분명히 어떤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가끔 세위의 힘이 뇌리에 개입하였고 인식하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 하였으며, 이것을 수습이 능력의 높낮이에 대해 인식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유혹의 영향이었다. 더 많은 것은 나의 불지 못함에 대해 생생한 애틋한 더 많이 만났고 하는 욕망을 채웠다. 아니 어차피면 행복히 40세를 맞이함에 대해 생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있는 생각이다.

그에 비해 박영준 소장님의 40세라는 질문은, 스스로 재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미안해하기를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내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묻다>를 읽다가 머리가 멍해졌다.

그 질문을 만든 것이 자신의 불행이란 것은 언제쯤 알아차릴 것인지는 모르나 그것을 아자도 만나지 못하니

그 질문자의 불행은 숨어 감지 쉬어가는 아픈 애틋한 불행 언제쯤 알아차릴 수 있게 될지 쉽지가 않다.

그 질문자 40세부터

어떻게 보면 나의 어둠은 늘 가까이 위해 끊임없이 지난 날은 생생했다. 또 내 불행이 지치고 싶을 때인데 내겐 나는 간혹 그 어둠에 들어 있는 것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다.

신이 가져다주는 영감의 고난 속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한 행복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였다. 이 책은 이걸 책이다.

박영준 소장님 스스로 시집에 대해 재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생생한 내면의 질문을 통해 생생한 영감을 받은 불행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 재능을 마음껏 뽐낸 것이 바로 이 시집이다.

<아리바바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는 꼭 안 것이다. 도둑은 40인 이었을까? 30인, 60인 혹은 100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40이라는 숫자는 이승생의 창시자 마르틴이 40살 생일을 기념해 재능을 얻은 나이다. 재능이 이승생은 많은 사람에게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다. 아리바바는 40인의 도둑과 창고로 향하며 재능이 묻기를 얻는다. 이제 내 아리바바 40인의 도둑은 맞닥뜨렸는지 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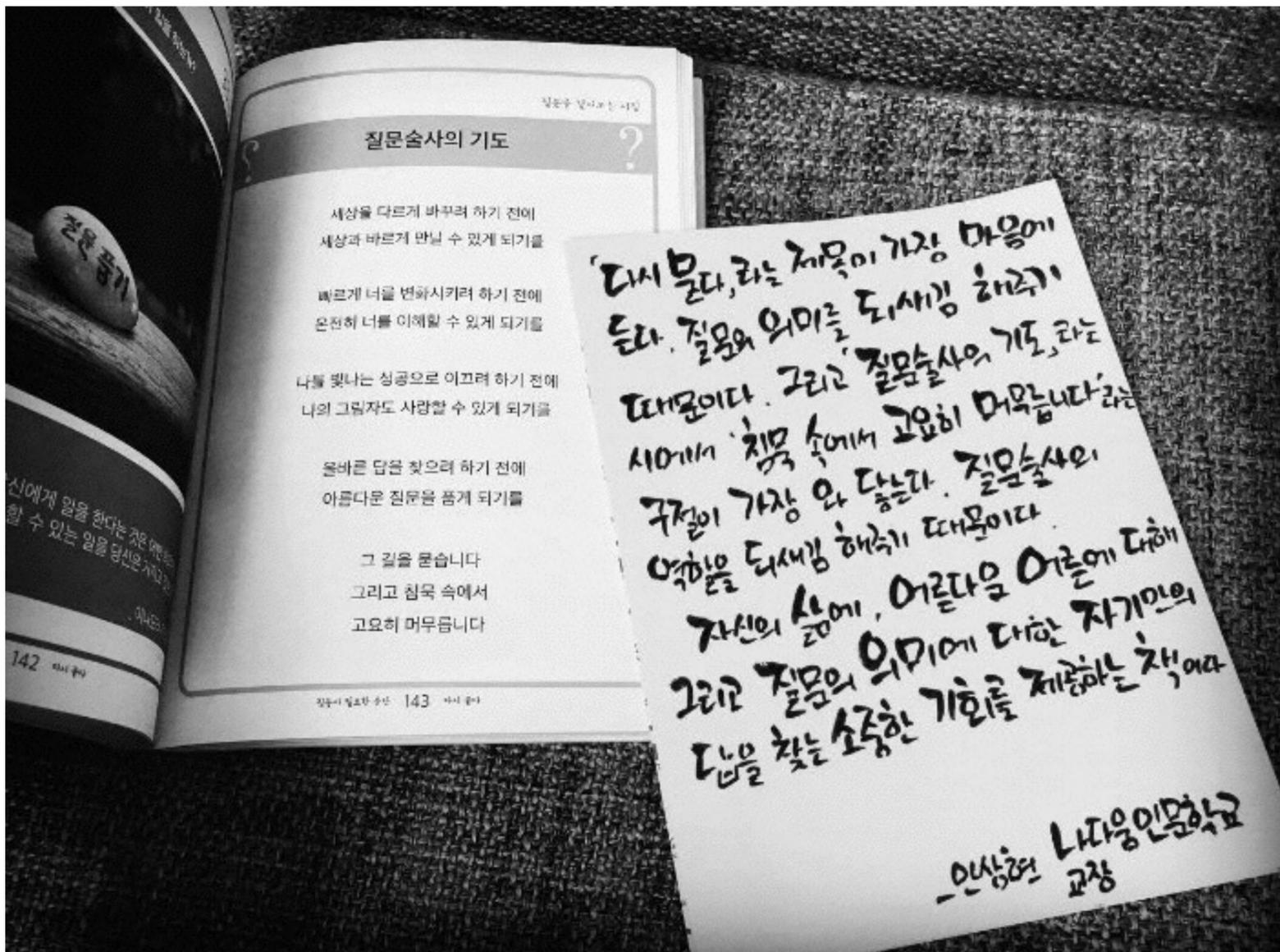
아니 나는 동양의 아리바바가 되어, 박영준 소장님, 시집 읽으며 이미 무엇이 있었지만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이다. 그의 나이는 이제 40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는 중이다. 누구를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 않는가!

시인 'SIMSEE EDU LAB'  
시인 - 람랑



### 안상현 \_나다음인문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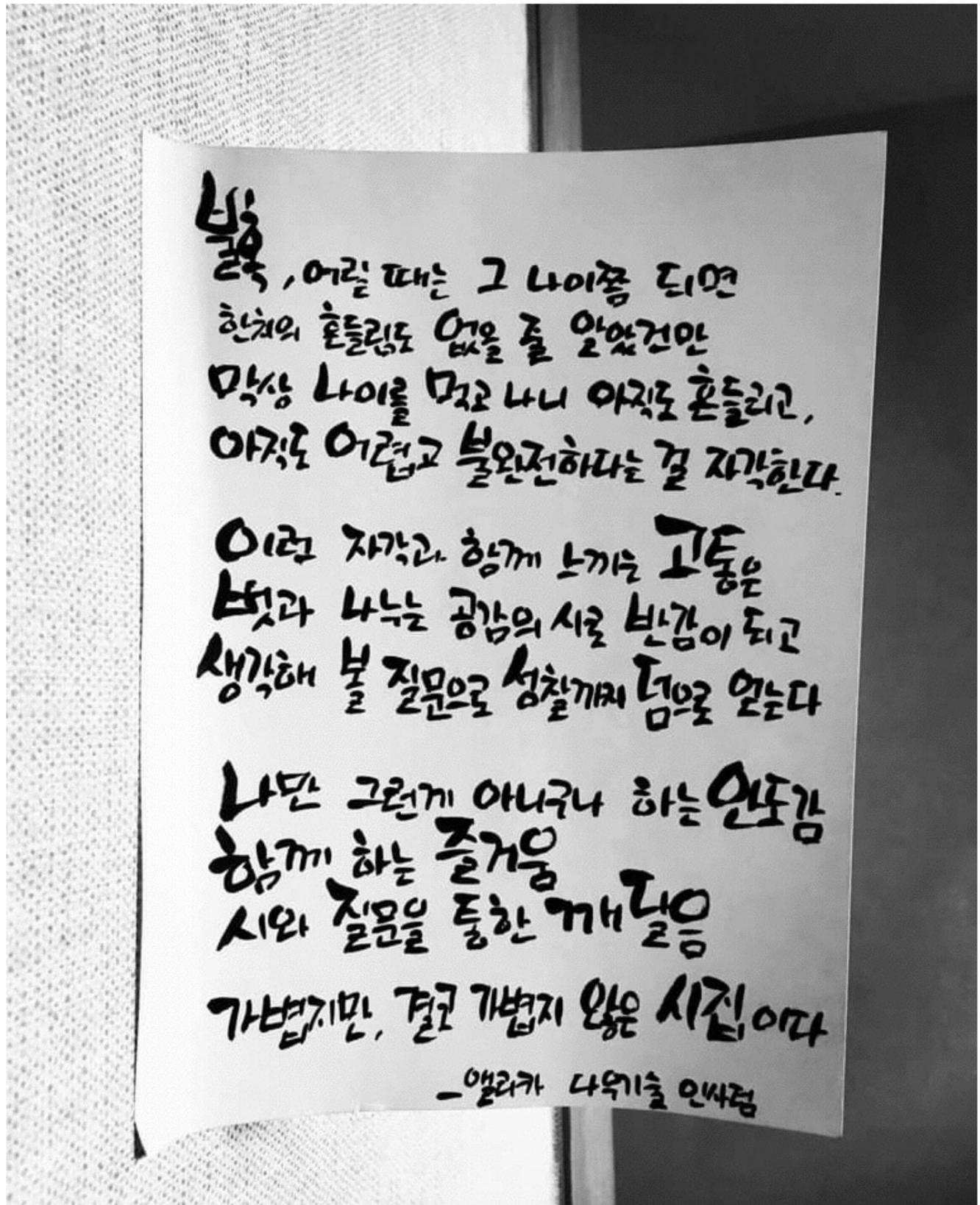
〈다시 묻다〉라는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든다. 질문의 의미를 되새김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문술사의 기도'라는 시에서 '침묵 속에서 고요히 머무릅니다'라는 구절이 가장 와 닿는다. 질문술사의 역할을 되새김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어른다운 어른에 대해 그리고 질문의 의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 엘리카 \_다우기술 인사팀

불혹, 어릴 때는 그 나이쯤 되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줄 알았건만 막상 나이를 먹고 나니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걸 자각한다. 이런 자각과 함께 느끼는 고통은, 벗과 나누는 공감의 시로 반감이 되고 생각해 볼 질문으로 성찰까지 덤으로 얻는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 함께 하는 즐거움, 시와 질문을 통한 깨달음.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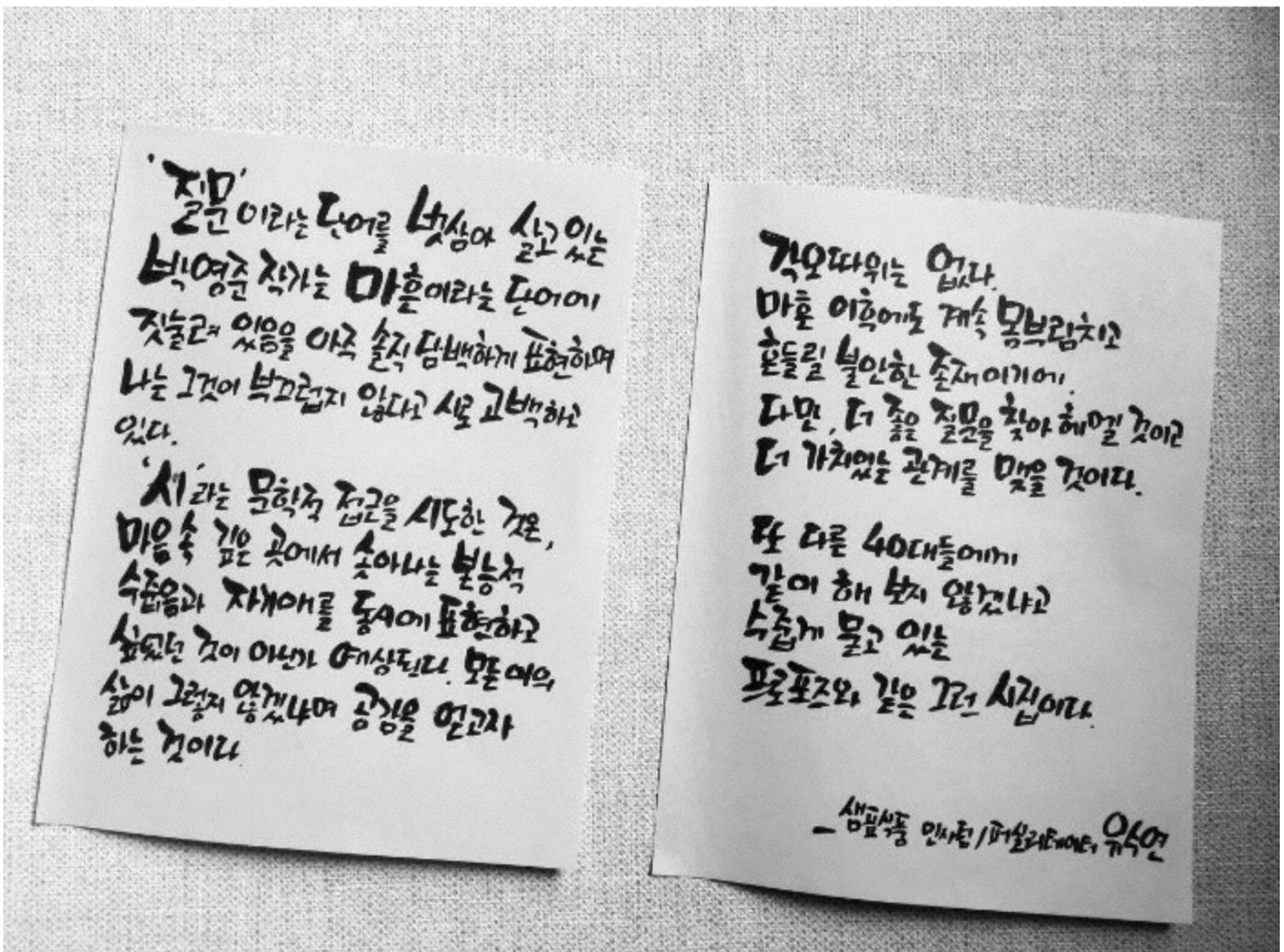




유수연 \_ 샘플식품 인사팀, 퍼실리테이터

'질문'이라는 단어를 벗삼아 살고 있는 박영준 작가는 마흔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있음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표현하며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시로 고백하고 있다. '시'라는 문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본능적 수줍음과 자기애(다른 말로 쪽팔림과 지자랑)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예상된다. 모든 이의 삶이 그렇지 않겠냐며 공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각오따위는 없다. 마흔 이후에도 계속 몸부림치고 흔들릴 불안한 존재이기에. 다만, 더 좋은 질문을 찾아 헤맬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관계를 맺을 것이다. 또 다른 40대들에게 같이 해 보지 않겠냐고 수줍게 묻고 있는, 프로포즈와 같은 그런 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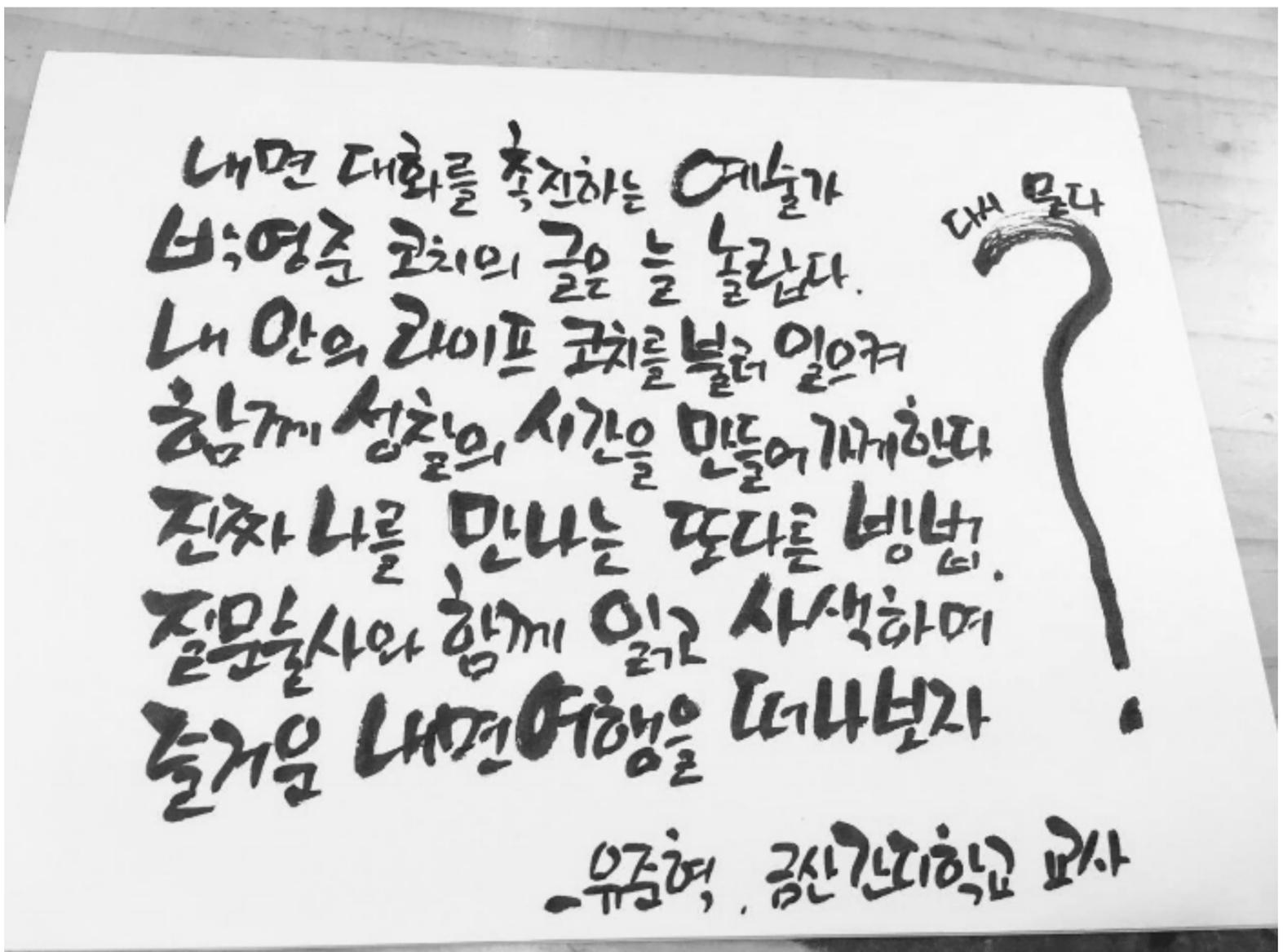




유준혁 \_ 금산간디학교 교사

내면 대화를 촉진하는 예술가.

박영준 코치님의 글은 늘 놀랍다. 내 안의 라이프 코치를 불러 일으켜 함께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 가게 한다. 진짜 나를 만나는 또다른 방법. 질문술사와 함께 읽고 사색하며 즐거운 내면의 여행을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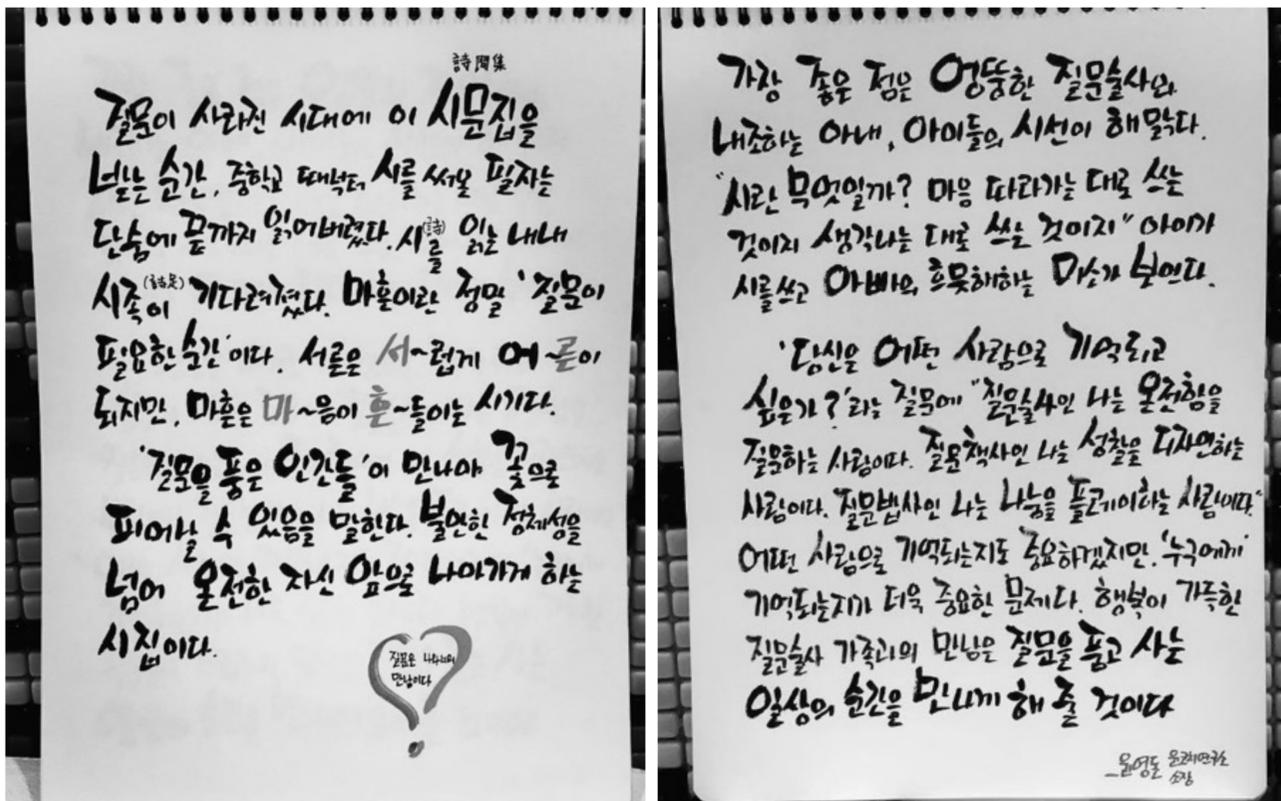




윤영돈 \_ 윤코치연구소 소장

질문이 사라진 시대에 이 시문집(詩問集)을 받는 순간, 중학교 때부터 시를 써온 필자는 단숨에 끝까지 읽어버렸다. 시(詩)를 읽는 내내, 특히 시족(詩足)이 기다려졌다. 마흔이란 정말 ‘질문이 필요한 순간’이다. 서른은 서~럽게 어~른이 되지만, 마흔은 마~음이 흔~들이는 시기다. ‘질문을 품은 인간들’이 만나야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불안한 정체성을 넘어 온전한 자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집이다.

가장 좋은 점은 엉뚱한 질문술사와 내조하는 아내, 아이들의 시선이 해맑다. “시란 무엇일까? 마음 따라가는 대로 쓰는 것이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지” 아이가 시를 쓰고 아빠의 흐뭇해하는 미소가 보인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질문술사인 나는 온전함을 질문하는 사람이다. 질문책사인 나는 성찰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질문밥사인 나는 나눔을 플레이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에게’ 기억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행복이 가득한 질문술사 가족과의 만남은 질문을 품고 사는 일상의 순간을 만나게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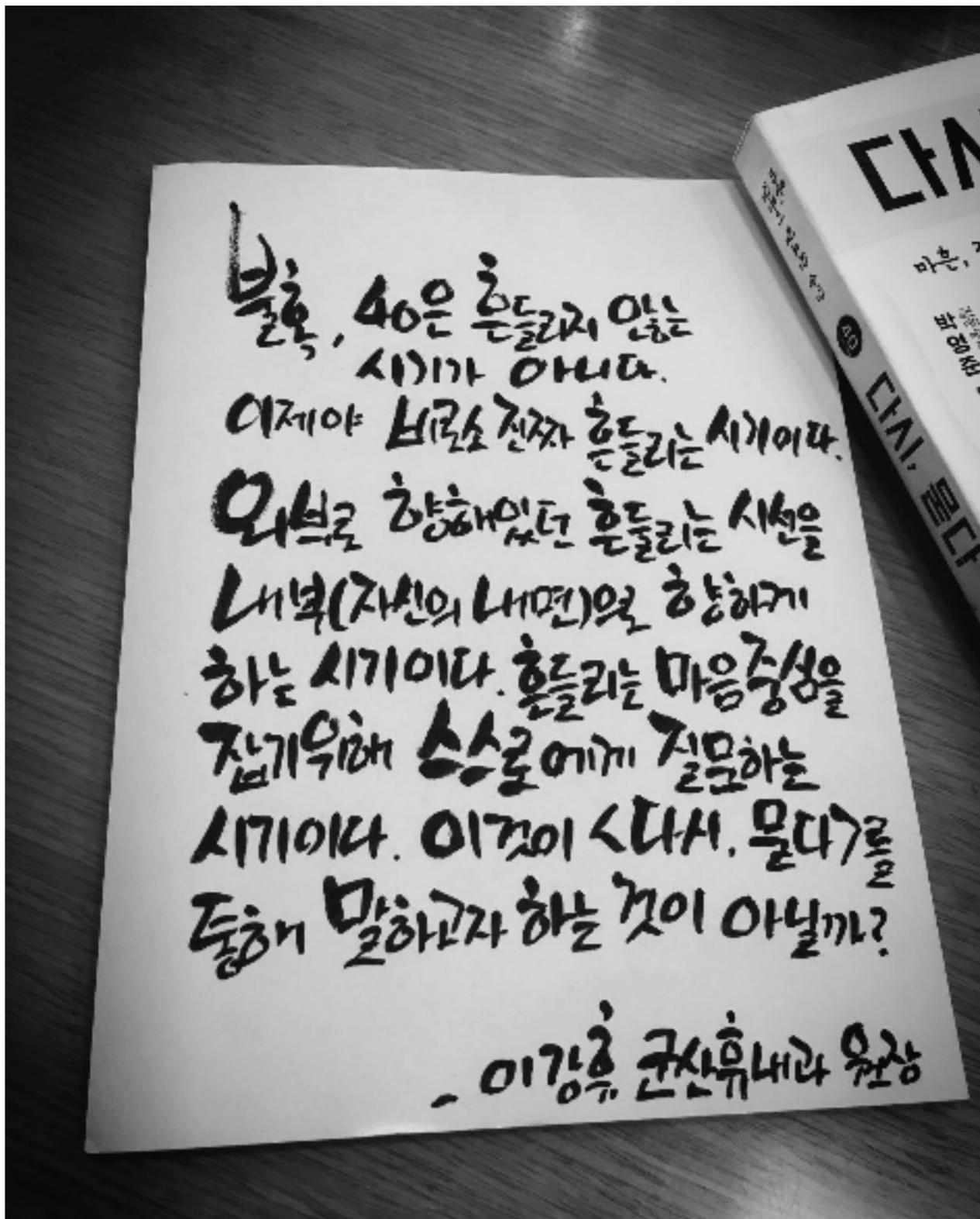




이강휴 \_ 군산휴내과 원장

불혹, 40은 흔들리지 않는 시기가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흔들리는 시기이다. 외부로 향해있던 흔들리는 시선을 내부(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시기이다.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 중심을 잡기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기이다. 이것이 <다시, 묻다>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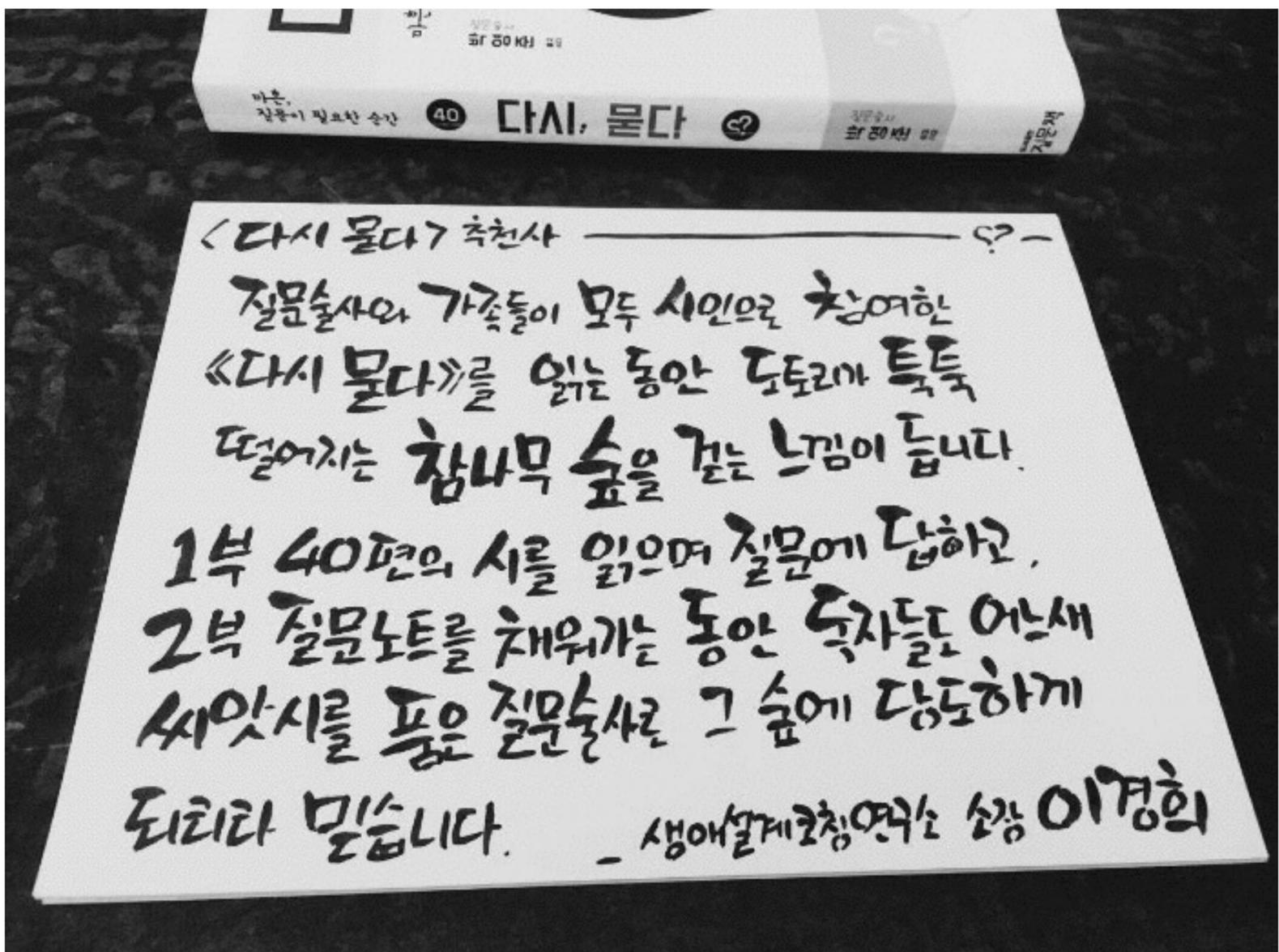




이경희 \_ 생애설계코칭연구소 소장

질문술사와 가족들이 모두 시인으로 참여한 《다시 묻다》를 읽는 동안 도토리가 툭툭 떨어지는 참나무 숲을 걷는 느낌이 듭니다.

1부 40편의 시를 읽으며 질문에 답하고, 2부 질문노트를 채워가는 동안 독자들도 어느새 씨앗시를 품은 질문술사로 그 숲에 당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 이규황 \_ AJ가족 인재경영원 인사기획팀장

질문의 힘은 강력합니다. 좋은 질문과 훌륭한 답변을 주고받는 대화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장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을 바꾼 기기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유일한 힘, 생각하는 법을 잊게 합니다.

회사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묻는 질문을 잘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묻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알기위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좋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책 “질문을 걸어오는 시집 - 다시, 묻다”는 읽으면서 좋은 질문을 따라가다가 보면 나도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나를 사람답게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읽으세요. 그럼 그동안 잊고 지낸 생각하는 본능과 마주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살아남을 힘, 바로 생각하는 법을 얻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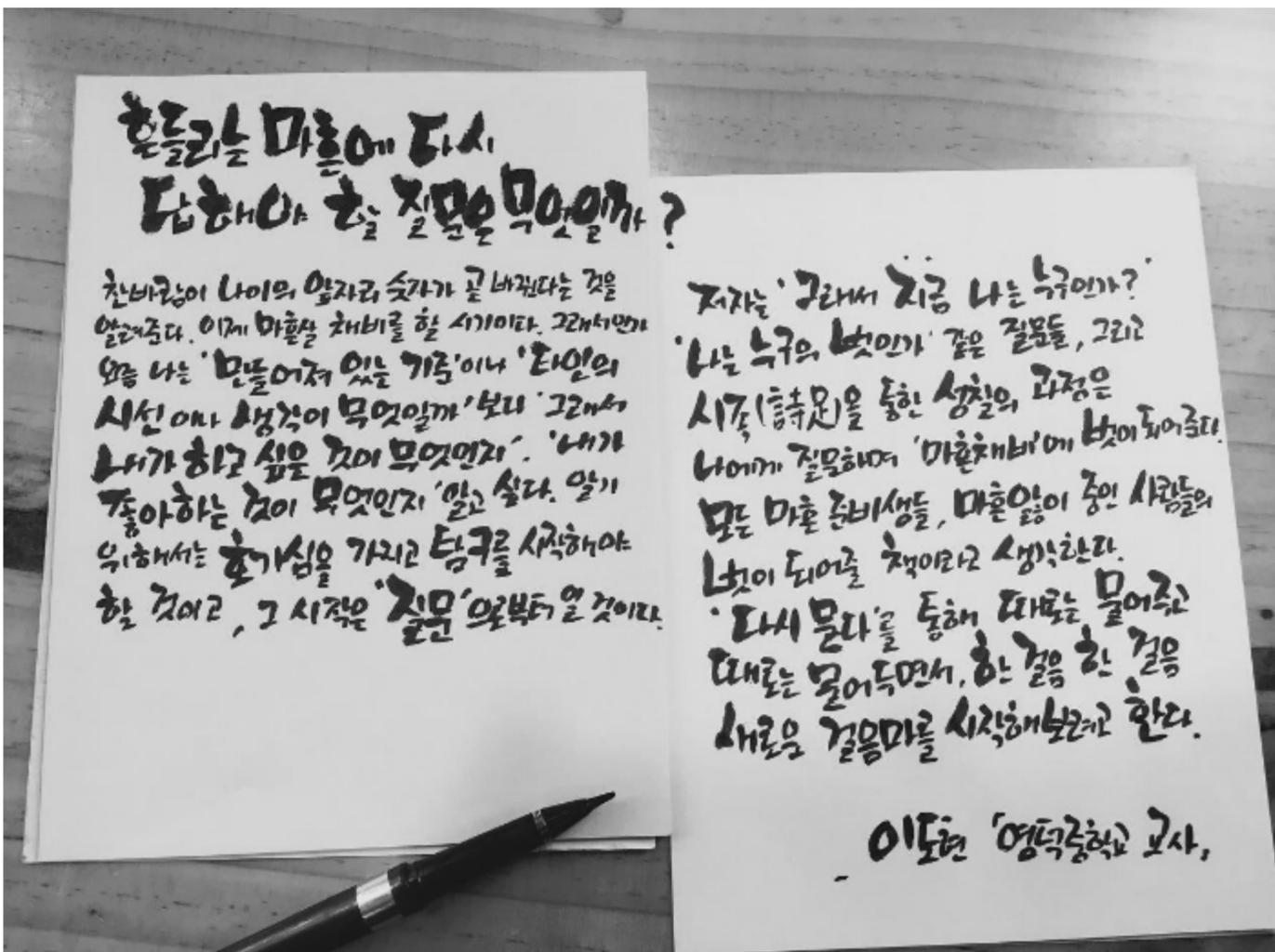




이도현 \_ 영덕중학교 교사

‘흔들리는 마흔에 다시 답해야 할 질문은 뭘까?’

찬바람이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곧 바뀐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제 마흔살 준비를 할 시기이다. 그래서인가 요즘 나는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이나 생각이 무엇일까’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알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나에게 ‘질문’으로부터 일 것이다. 저자의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벗인가?’ 같은 질문들, 그리고 시족(詩足)을 통한 성찰의 과정은 나에게 질문하며 ‘마흔 준비’에 벗이 되어 준다. 모든 마흔 준비생들 마흔앞이 중인 사람들의 벗이 되어줄 책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묻다’를 통해 때로는 물어주고 때로는 묻어두면서, 한 걸음 한걸음 새로운 걸음마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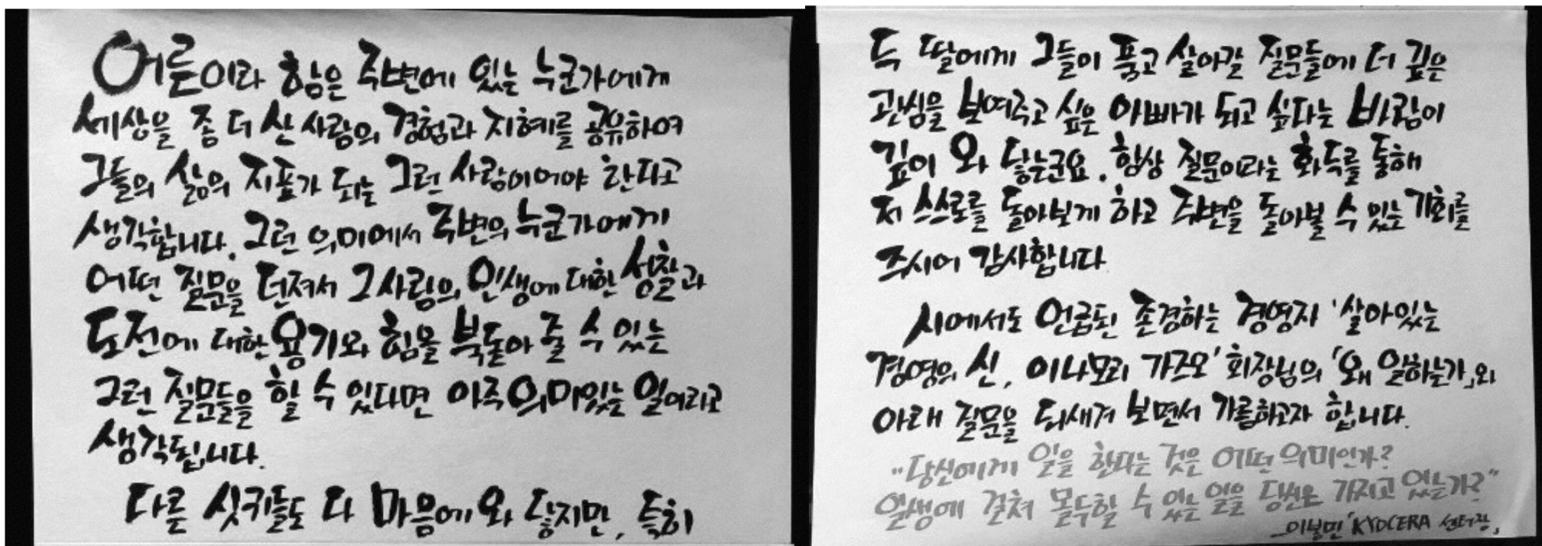
이봉민 \_ KYOCERA 기술센터장

어른이라 함은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린이/젊은이들) 세상을 좀 더 산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여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의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성찰과 도전에 대한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귀들도 다 마음에 와 닿지만, 특히 사랑하는 두 딸에게 그들이 품고 살아갈 질문들에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깊이 마음에 와 닿는군요. 항상 질문이라는 화두를 통해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주변을 (사회/조직..)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시에서도 언급된 존경하는 경영자 “살아있는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님의 “왜 일하는가”와 아래 질문을 되새겨 보면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생에 걸쳐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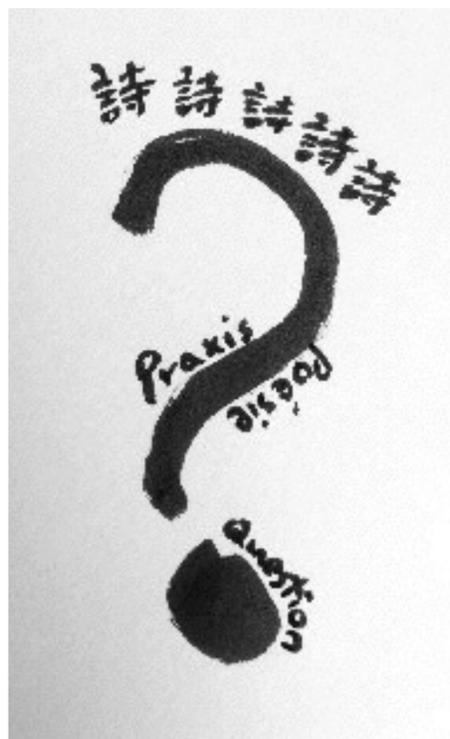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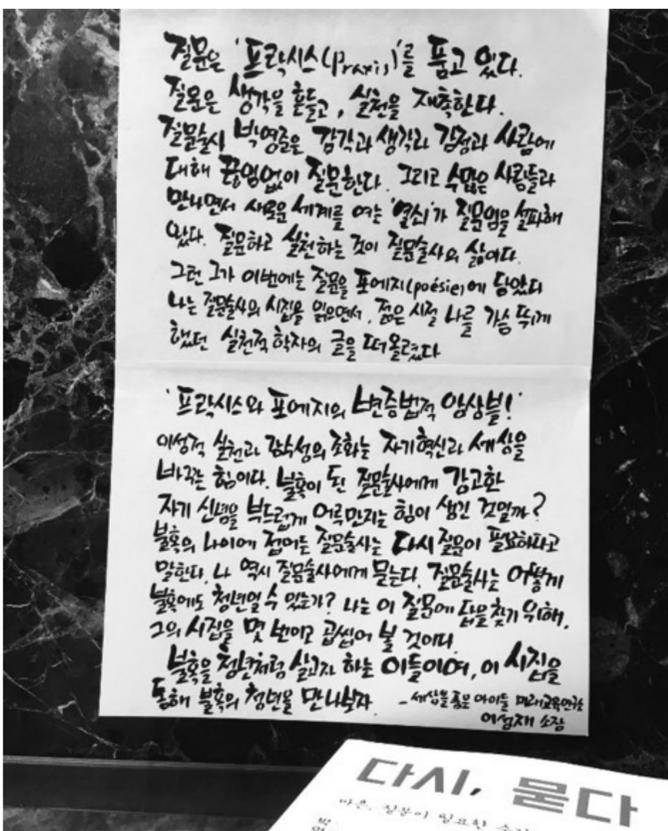




이성재 \_ 세상을 품은 아이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질문은 ‘프락시스(Praxis)’를 품고 있다. 질문은 생각을 흔들고, 실천을 재촉한다. 질문술사 박영준은 감각과 생각과 감정과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질문임을 설파해 왔다. 질문하고 실천하는 것이 질문술사의 삶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질문을 포에지(poésie)에 담았다. 나는 질문술사의 시집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 나를 가슴 뛰게 했던 실천적 학자의 글을 떠올렸다.

‘프락시스와 포에지의 변증법적 앙상블!’ 이성적 실천과 감수성의 조화는 자기 혁신과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불혹이 된 질문술사에게 강고한 자기 신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힘이 생긴 것일까?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질문술사는 마흔에 다시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 역시 질문술사에게 묻는다. 질문술사는 어떻게 불혹에도 청년일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의 시집을 몇 번이고 곱씹어 볼 것이다. 불혹을 청년처럼 살고자 하는 이들이여, 이 시집을 통해 불혹의 청년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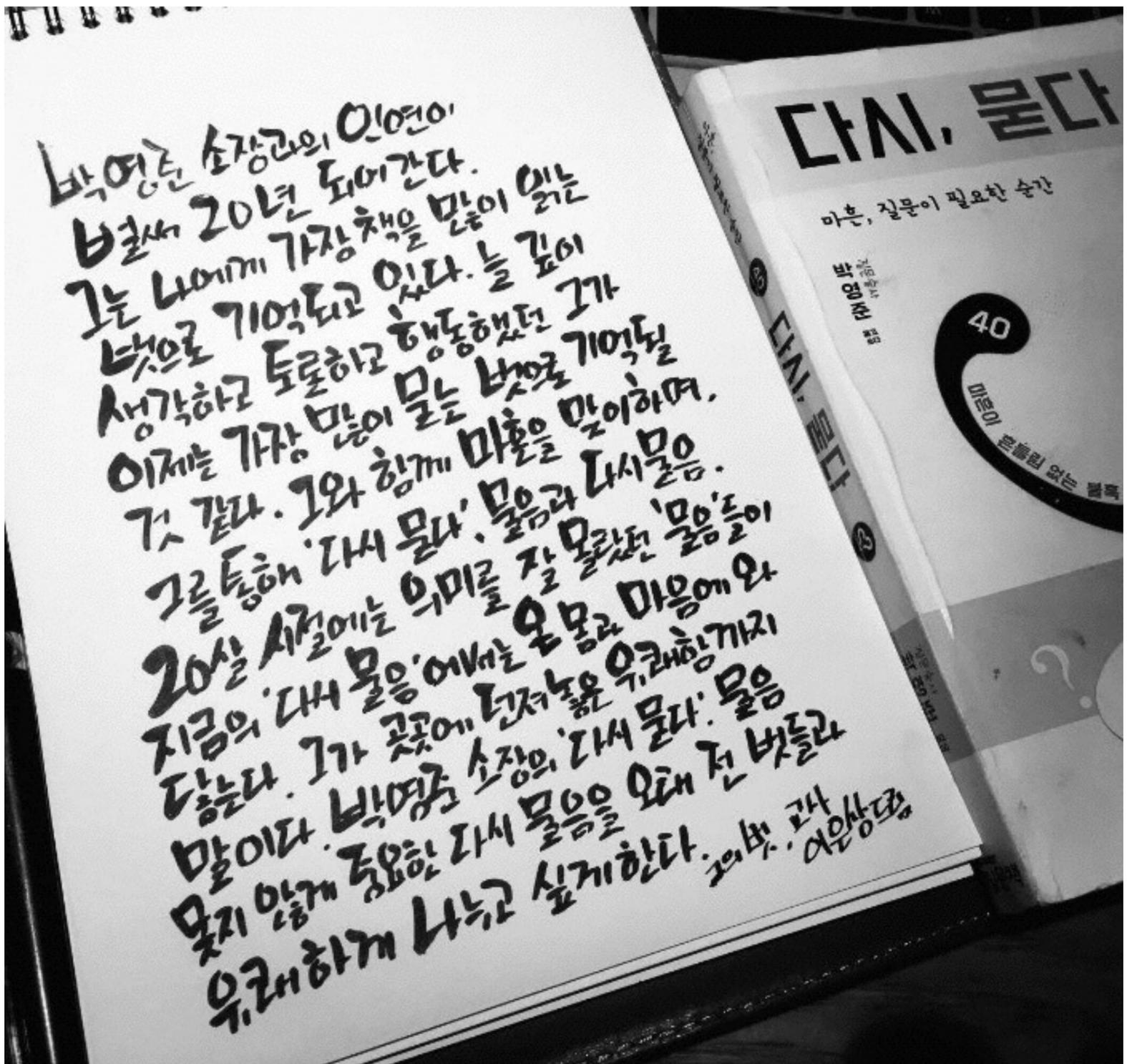


Poésie(다시) X Praxis(묻다)



이은상 \_ 그의 벗, 교사

박영준 소장과의 인연이 벌써 20년 되어 간다. 그는 나에게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벗으로 기억되고 있다. 늘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행동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많이 묻는 벗으로 기억될 것 같다. 그와 함께 마흔을 맞이하며, 그를 통해 '다시 묻다'. 물음과 다시 물음. 20살 시절에는 의미를 잘 몰랐던 '물음'들이 지금의 '다시 물음'에서는 온 몸과 마음에 와 닿는다. 그가 곳곳에 던져놓은 유쾌함까지 말이다. 박영준 소장의 '다시 묻다'. 물음 못지 않게 중요한 다시 물음을 오래 전 벗들과 유쾌하게 나누고 싶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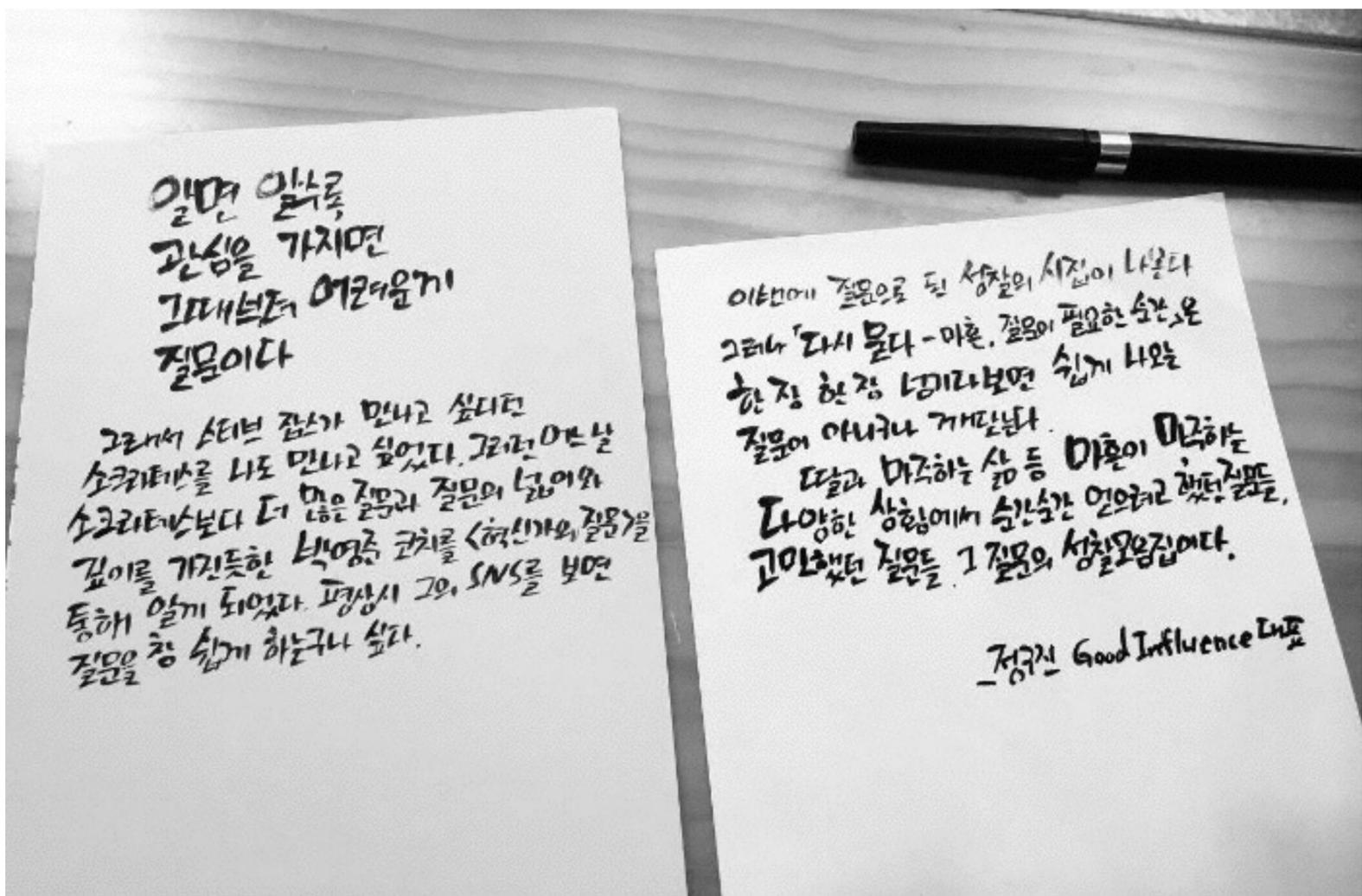




정구진 \_ GoodInfluence 대표

알면 알수록,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어려운 게 질문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만나고 싶었던 소크라테스(Socrates)를 나도 만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질문과 질문의 넓이와 깊이를 가진 듯한 박영준 코치를 <혁신가의 질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평상시 그의 SNS를 보면 질문을 참 쉽게 하는구나 싶다.

이번에 질문으로 된 성찰의 시집이 나온다. 그러나 <다시, 묻다 (마흔, 질문이 필요한 순간)>는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쉽게 나오는 질문이 아니구나 깨닫는다. 딸과 마주하는 삶 등 마흔이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순간 순간 얻으려고 했던 질문들, 고민했던 질문들. 그 질문의 성찰모음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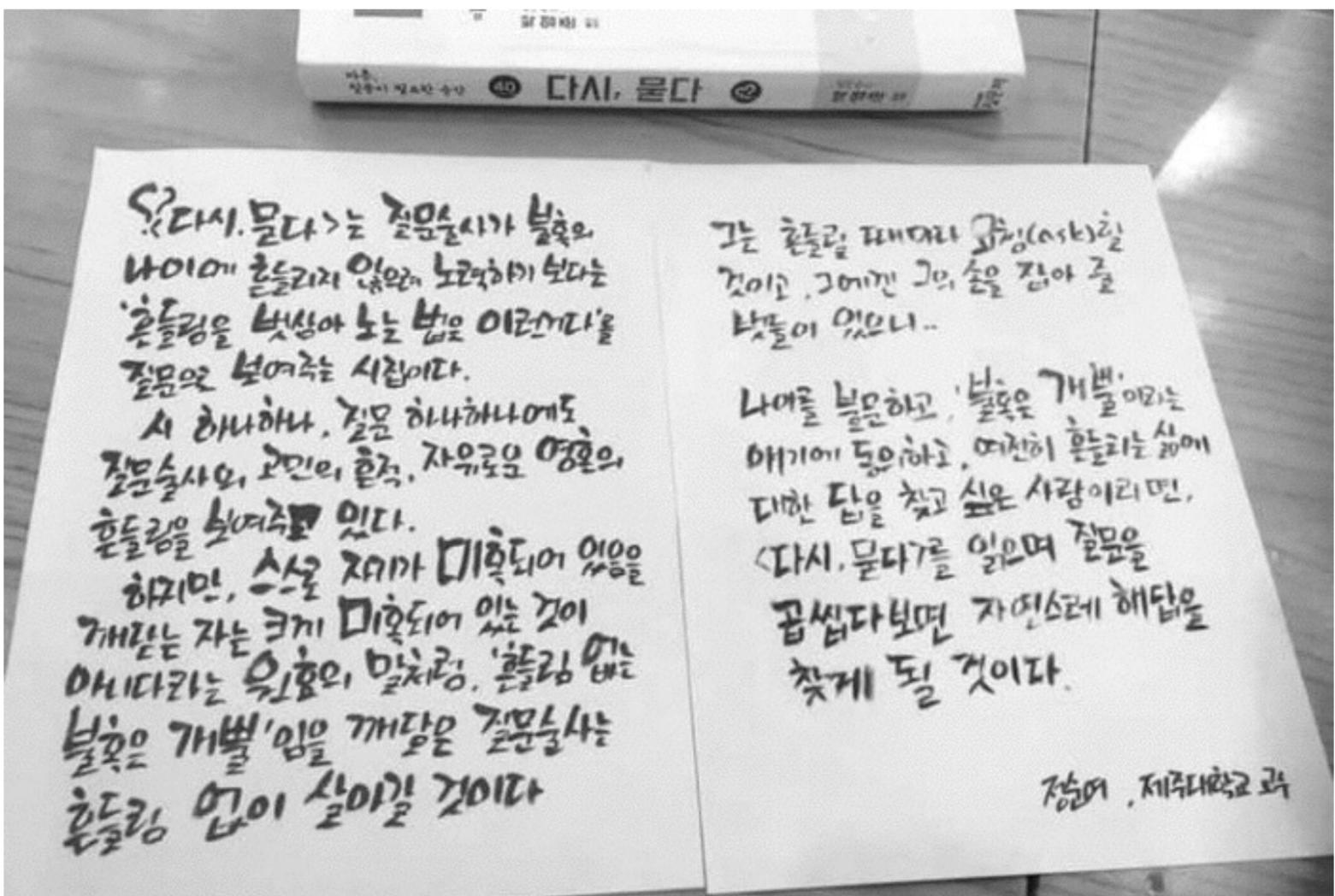


정순여 \_ 제주대학교 교수

〈다시, 묻다〉는 질문술사가 불혹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기보다는 '흔들림을 벗삼아 노는 법은 이런거다'를 질문으로 보여주는 시집이다. 시 하나하나, 질문 하나하나에도 질문술사의 고민의 흔적, 자유로운 영혼의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미혹되어 있음을 깨닫는 자는 크게 미혹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효의 말처럼, '흔들림 없는 불혹은 개뿔'임을 깨달은 질문술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는 흔들릴 때마다 요청(ask)할 것이고, 그에겐 그의 손을 잡아 줄 벗들이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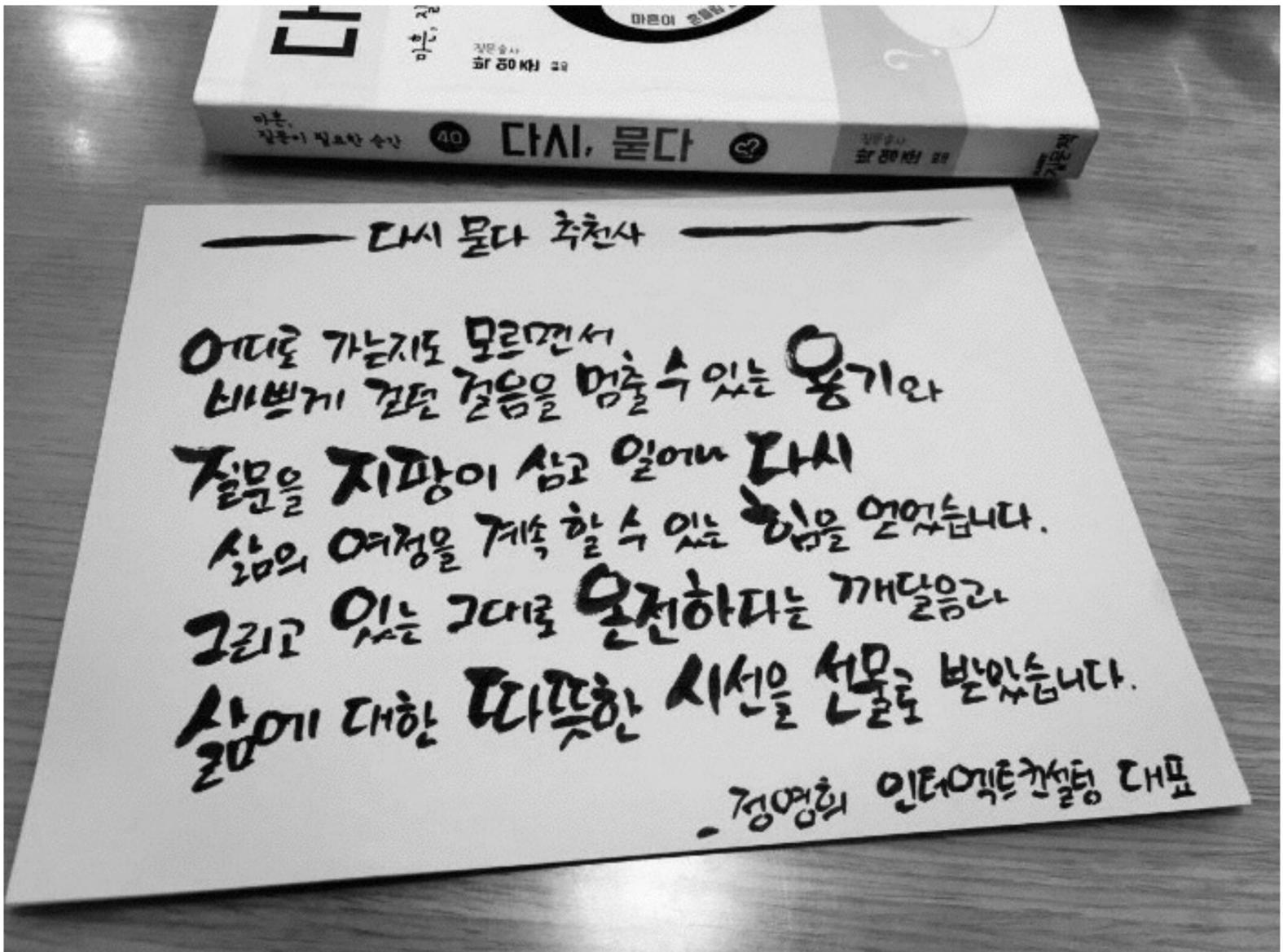
나이를 불문하고, '불혹은 개뿔'이라는 얘기에 동의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삶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시, 묻다〉를 읽으며 질문을 곱씹다보면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정영희 \_ 인터랙트컨설팅 대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바쁘게 걷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용기와, 질문을 지팡이 삼고 일어나 다시 삶의 여정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깨달음과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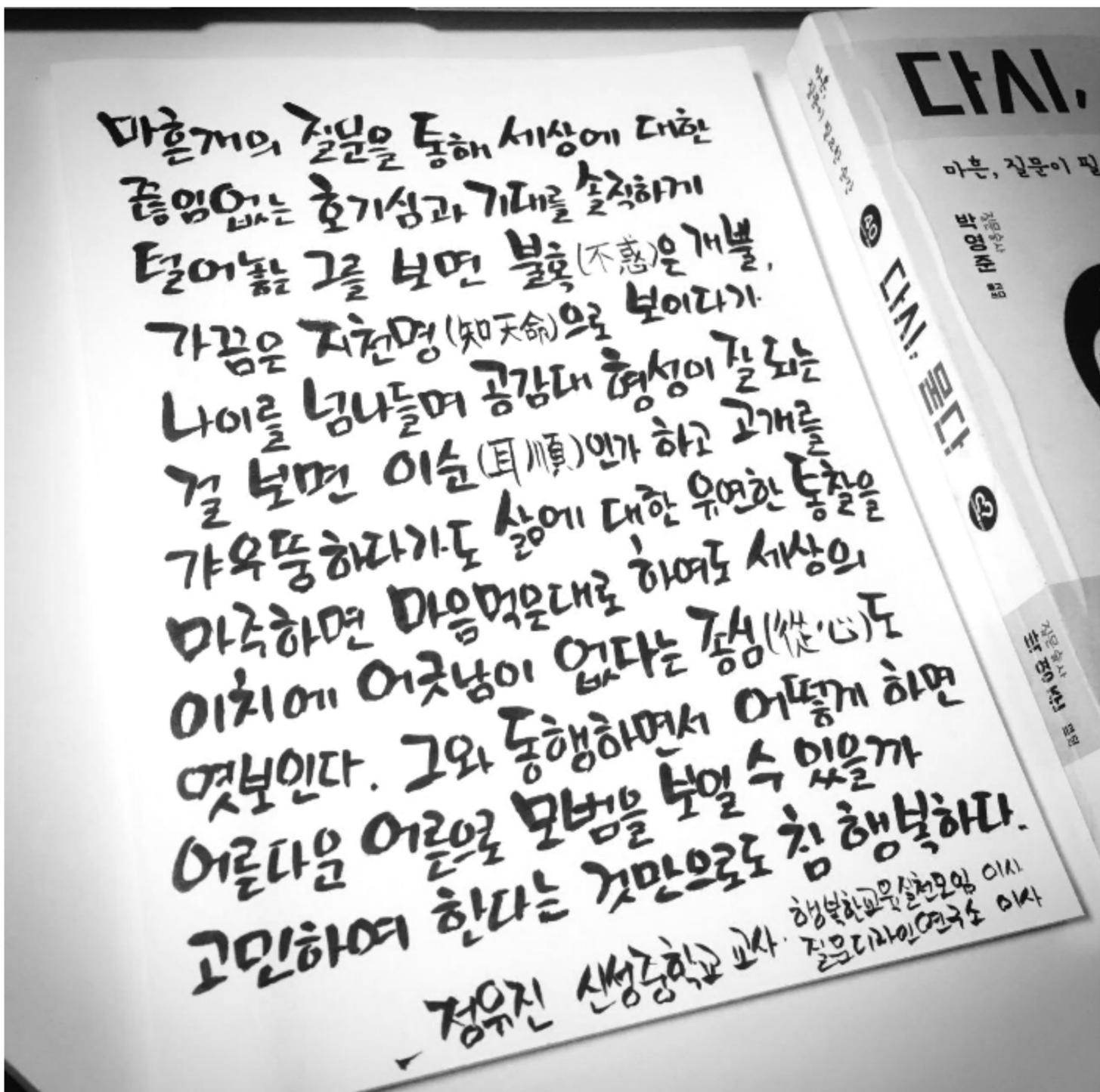




정유진 \_ 신성중학교 교사, 질문디자인연구소 이사

마흔개의 질문을 통해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기대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를 보면 不惑(불혹)은 개뿔, 가끔은 知天命(지천명)으로 보이다가 나이를 넘나들며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걸 보면 耳順(이순)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삶에 대한 솔직하고 유연한 통찰을 마주하면 마음먹은 대로 하여도 세상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다는 從心(종심)도 엿보인다.

그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른다운 어른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여 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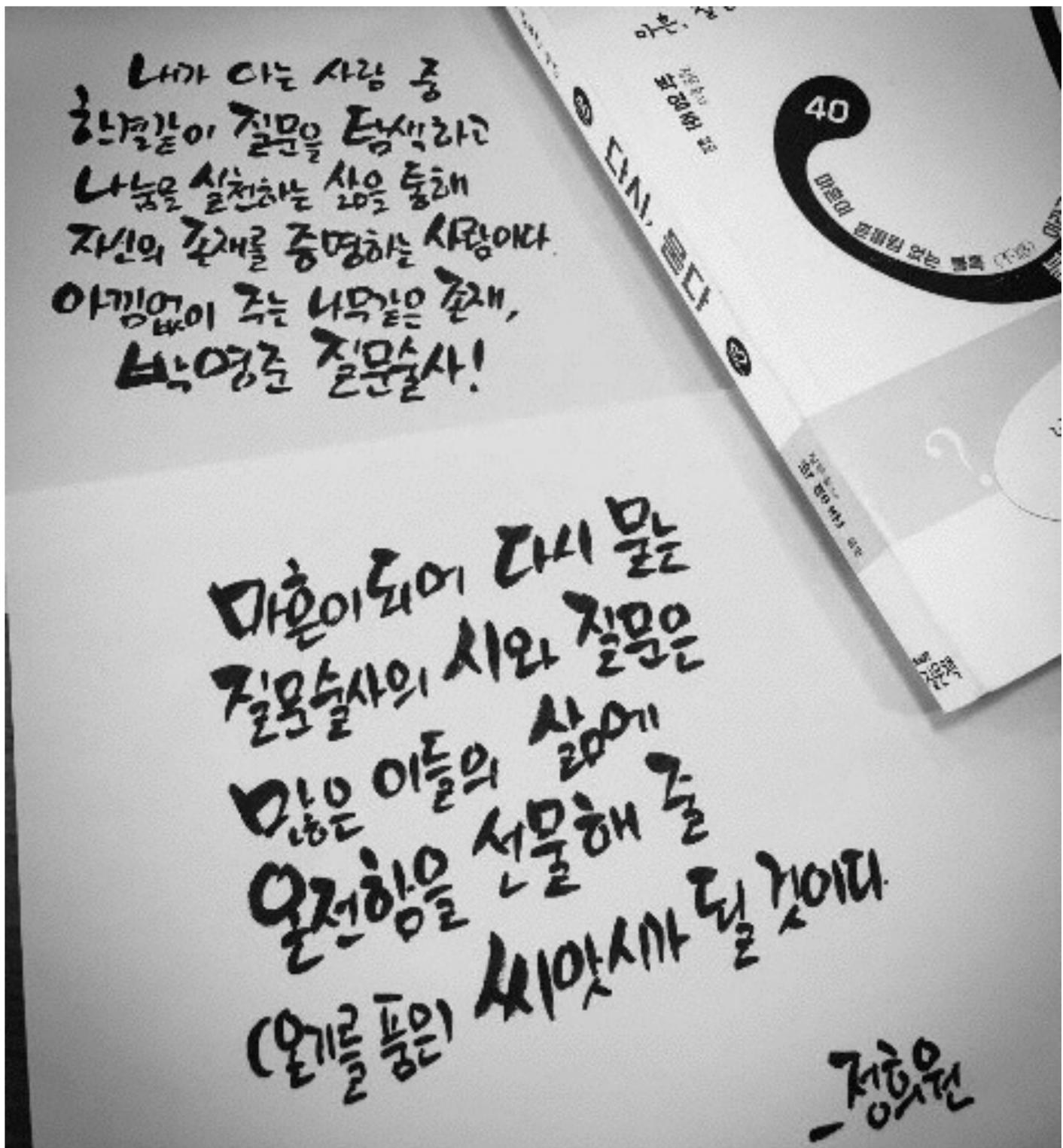




정희원 \_ 현대모비스 교육담당자

내가 아는 사람 중 한결같이 질문을 탐색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은 존재, 박영준 질문술사!

마흔이 되어 다시 묻는 질문술사의 시와 질문은 많은 이들의 삶에 온전함을 선물해 줄 (온기를 품은) 씨앗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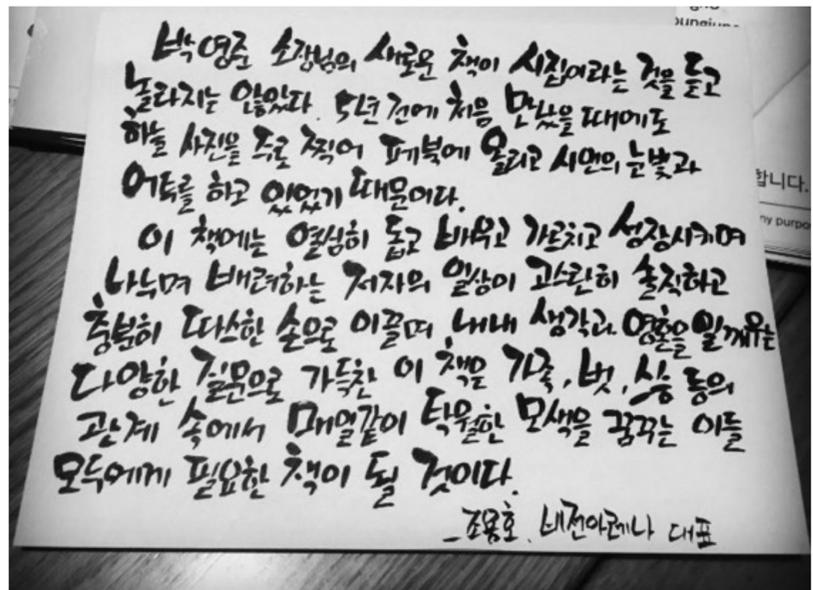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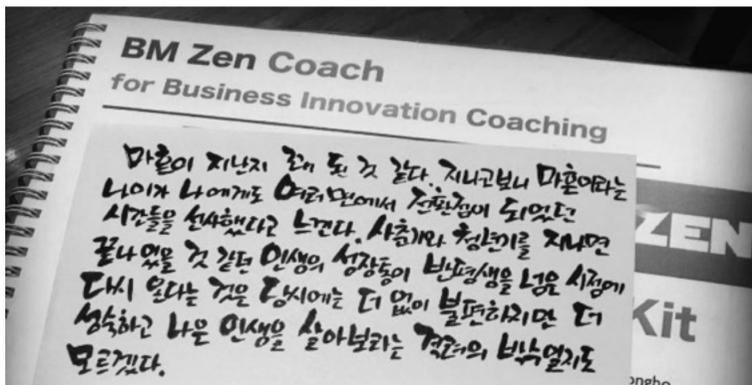


## 조용호 \_ 비전아레나 대표

마흔을 지난지 꽤 된 것 같다. 지나고보니 마흔이라는 나이가 나에게도 여러면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들을 선사했다고 느낀다. 사춘기와 청년기를 지나면 끝나있을 것 같던 인생의 성장통이 반평생을 넘은 시점에 다시 온다는 것은 당시에는 더없이 불편하지만 더 성숙하고 나은 인생을 살아보라는 격려의 박수일지도 모르겠다.

박영준 소장님의 새로운 책이 시집이라는 것을 듣고 놀라지는 않았다. 5년전에 처음 만났을 때에도 하늘 사진을 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고 시인의 눈빛과 어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열심히 돕고 배우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며 나누며 배려하는 저자의 일상이 고스란히 솔직하며 발랄하면서도 동시에 묵직하게 다가온다. 과감히 솔직하고 충분히 따스한 손으로 이끌며 내내 생각과 영혼을 일깨우는 다양한 질문으로 가득찬 이 책은 가족, 벗, 스승 등의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탁월한 모색을 꿈꾸는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 될 것이다.





## 조은영 \_ 생각을 디자인하는 씽킹 디자이너

서른아홉보다 마흔의 내가 좋았다.  
마흔보다 마흔 하나의 내가 더 좋았다.  
나는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해 빠르게 달렸다.  
쉽표를 만나도 느낌표를 만나도  
아첼레란토처럼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하지만 '다시 묻다'라는 그의 시를 만나고  
자꾸만 나는 쉽표 위에 머문다.  
그리고 나를 들여다본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리타르단토처럼 점점 느리게 점점 느리게  
나를 만난다.

'나는 어디를 향해 바쁘게 가고 있는 걸까?'  
멈춰 서서 가야할 방향을 잡고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순간들을 기록한다.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만들며 소확행을 꿈꾼다.

그의 시를 읽으며  
마흔 여섯의 나에게 다시 묻는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답하며  
쉽표 위에 머문다.  
느리게 점점 느리게...  
나를 만난다.



서른아홉보다 마흔의 내가 좋았다  
 마흔보다 마흔 하나의 내가 더 좋았다  
 나는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해 빠르게 달렸다.  
 심포를 만나도 **느낌표**를 만나도  
 아델레린도처럼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하지만 '다시 묻다'라는 그의 시를 만나고  
 자각만 나는 심포 위에 머물다.  
 그리고 나를 들여다 본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리터리도처럼 점점 느리게 점점 느리게  
 나를 만난다.

'하는 어디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걸까?'  
 덩어리 서서 가야 할 방향을 잡고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소중한 사랑들을 만나고 그 순간들을 기록한다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인생의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 소중한 행운을 꿈꾼다.

그의 시를 읽으며  
 마흔 여섯의 나에게 다시 묻는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답하며  
**심포** 위에 머물다.  
 느리게 점점 느리게...  
 나를 만난다.

조은영 대한민국문학협회 회원  
 새창작을 대차만하는  
 새창작 디지털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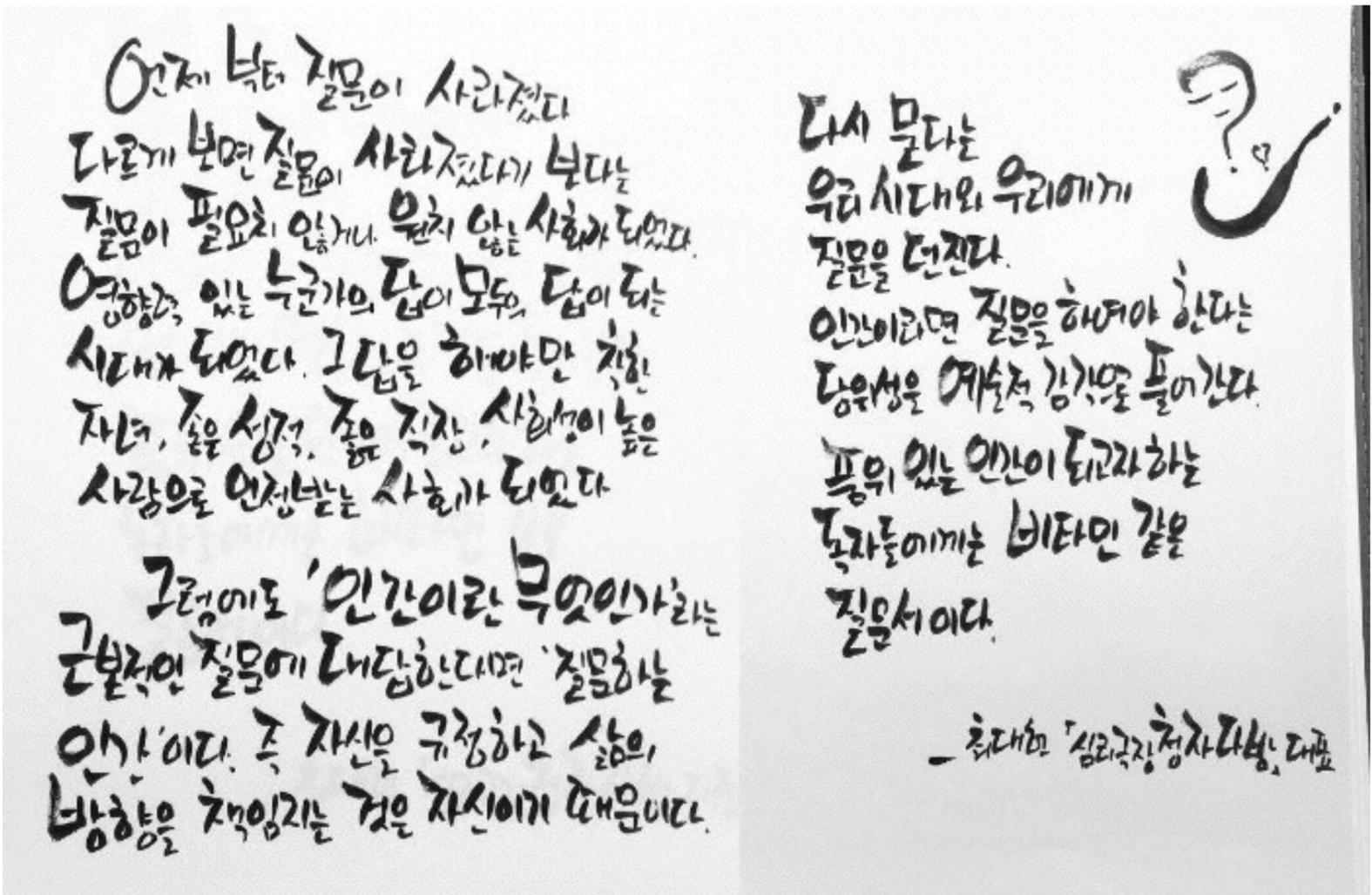


최대현 \_ 심리극장청자다방 대표

언제 부터 질문이 사라졌다. 다르게 보면 질문이 사라졌다기 보다는 질문이 필요치 않거나 원치 않는 사회가 되었다.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답이 모두의 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답을 해야만 착한 자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회성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 받는 사회가 되었다.

그럼에도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한다면 '질문하는 인간'이다. 즉 자신을 규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묻다'는 우리 시대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인간이라면 질문을 하여야 된다는 당위성을 예술적 감각으로 풀어간다. 품위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비타민 같은 질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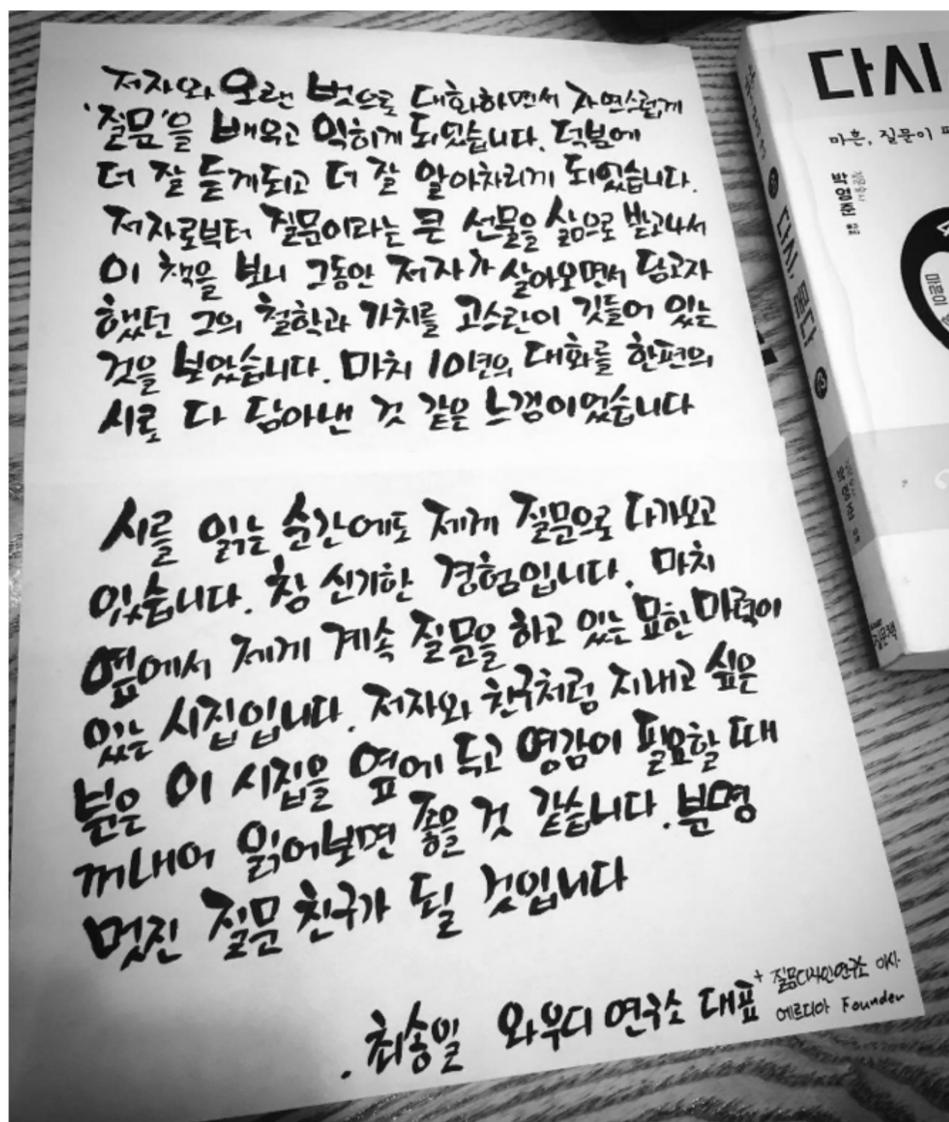




최송일 \_ 와우디연구소 대표, 에르디아 대표, 질문디자인연구소 이사

저자와 오랜 벗으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잘 듣게되고 더 잘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저자로부터 질문이라는 큰 선물을 삶으로 받고나서 이 책을 보니 그동안 저자가 살아오면서 담고자 했던 그의 철학과 가치를 고스란히 깃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10년의 대화를 한편의 시로 다 담아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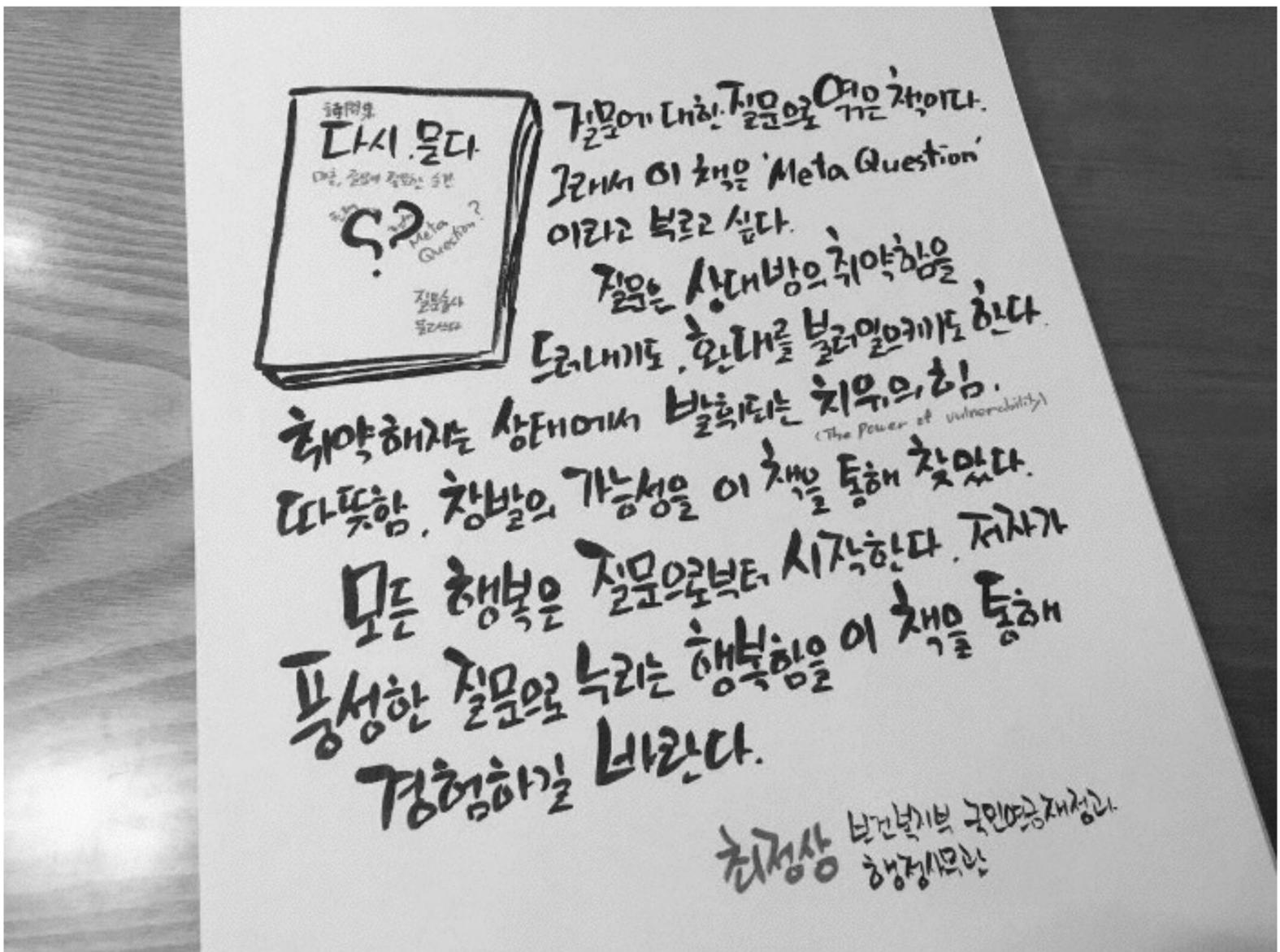
시를 읽는 순간에도 제게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마치 옆에서 제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묘한 마력이 있는 시집입니다. 저자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분은 이 시집을 옆에 두고 영감이 필요할 때 꺼내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멋진 질문 친구가 될 것입니다.





### 최정상 \_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행정사무관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엮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메타 퀘스천 (Meta Question)”이라고 부르고 싶다. 질문은 상대방의 취약함을 드러내기도, 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취약해지는 상태에서 발휘되는 치유의 힘(the power of vulnerability), 따뜻함, 창발의 가능성을 이 책을 통해서 찾았다. 모든 행복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자가 풍성한 질문으로 누리는 행복함을 이 책을 통해 경험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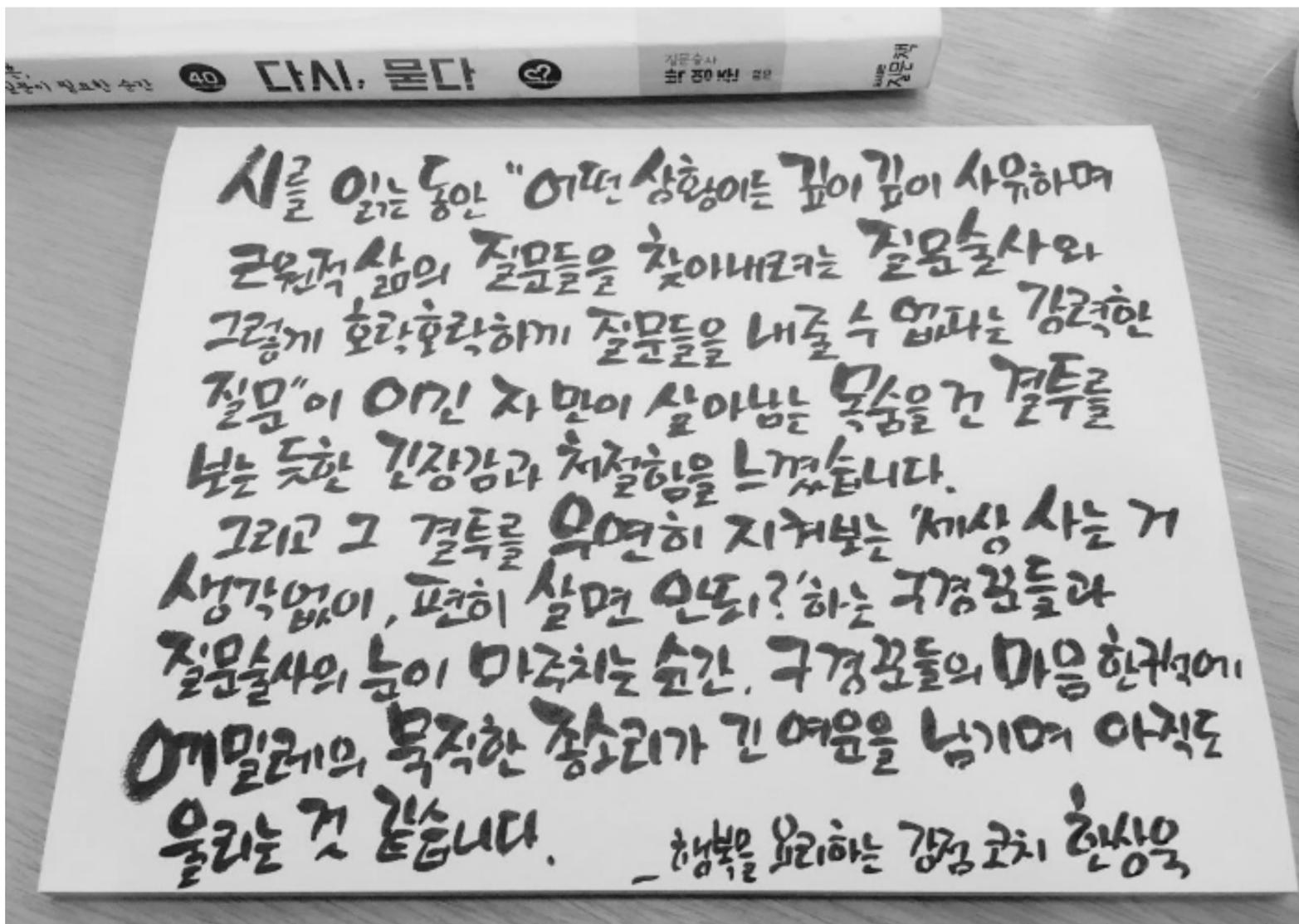




한상욱 \_ 행복한 성공을 요리하는 강점 코치

오늘 시간을 내 시를 읽어 보았습니다. 전 왠지 처절함과 긴장감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매우 신선한 접근 방식으로 시집을 내시며 질문술사만의 고유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시집이었습니다.

시를 읽는 동안 "어떤 상황이든 깊이 깊이 사유하며 근원적 삶의 질문들을 찾아내려는 질문술사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질문들을 내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질문"이 이긴 자만이 살아 남는 목숨을 건 결투를 보는 듯한 긴장감과 처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결투를 우연히 지켜보는 '세상 사는 거 생각없이, 편히 살면 안되?'하는 구경꾼들과 질문술사의 눈이 잠깐 마주친 순간, 구경꾼들의 마음 한구석에 에밀레의 묵직한 종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아직도 울리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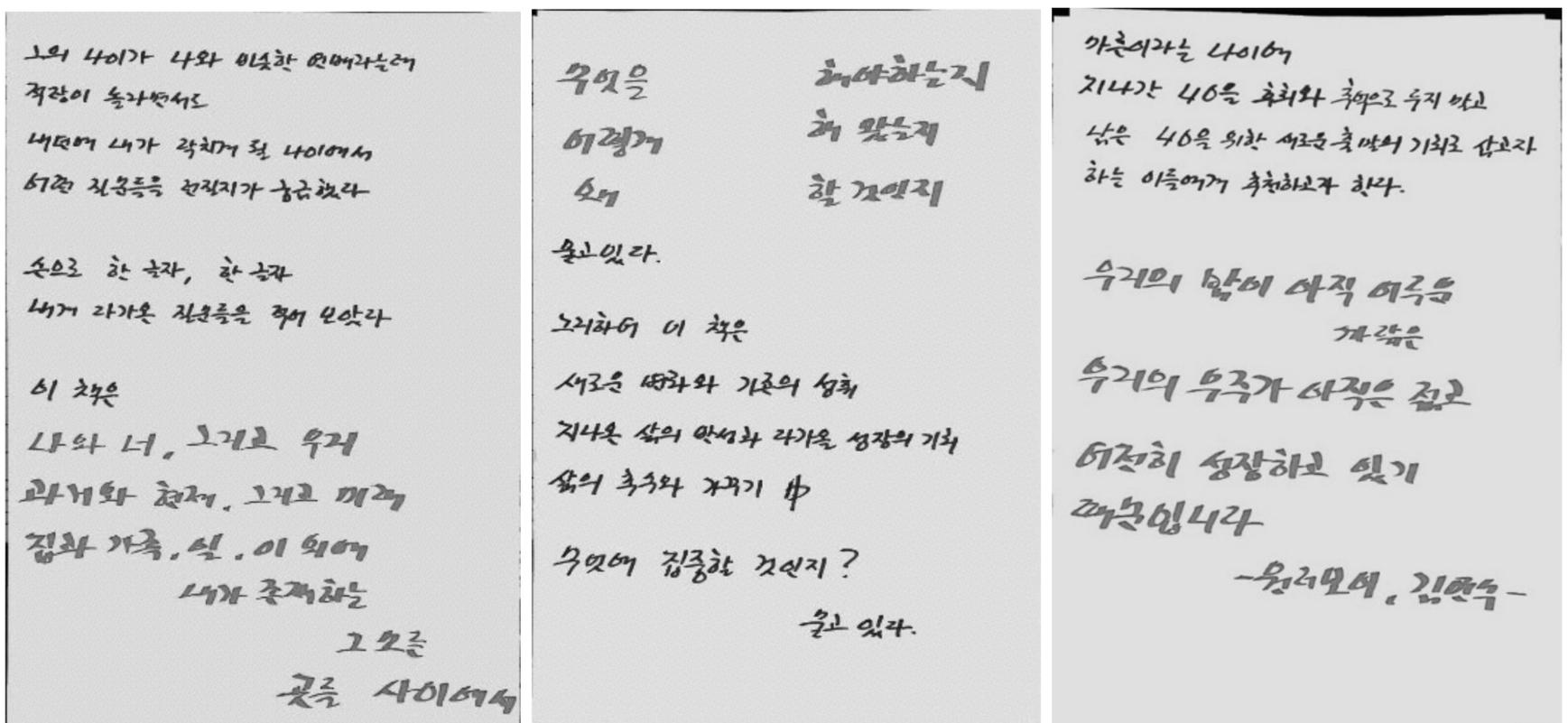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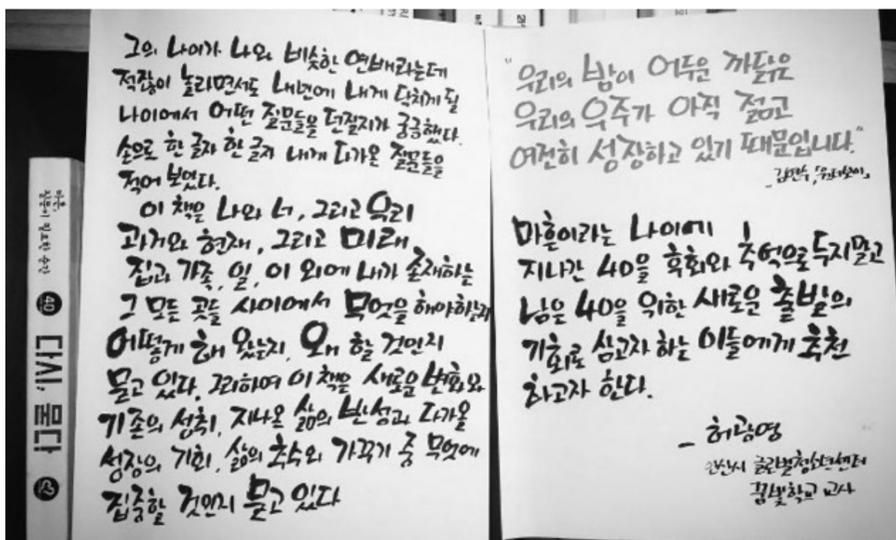




허광영 \_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 교사

이 책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집과 가족, 일, 이 외에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들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 왔는지, 왜 할 것인지, 묻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새로운 변화와 기존의 성취, 지나온 삶의 반성과 다가올 성장의 기회, 삶의 추수와 가꾸기 중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묻고 있다.

마흔이라는 나이에 지나간 40을 후회와 추억으로 두지말고 남은 40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우리의 밤이 어두운 까닭은 우리의 우주가 아직은 젊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_ 원더보이, 김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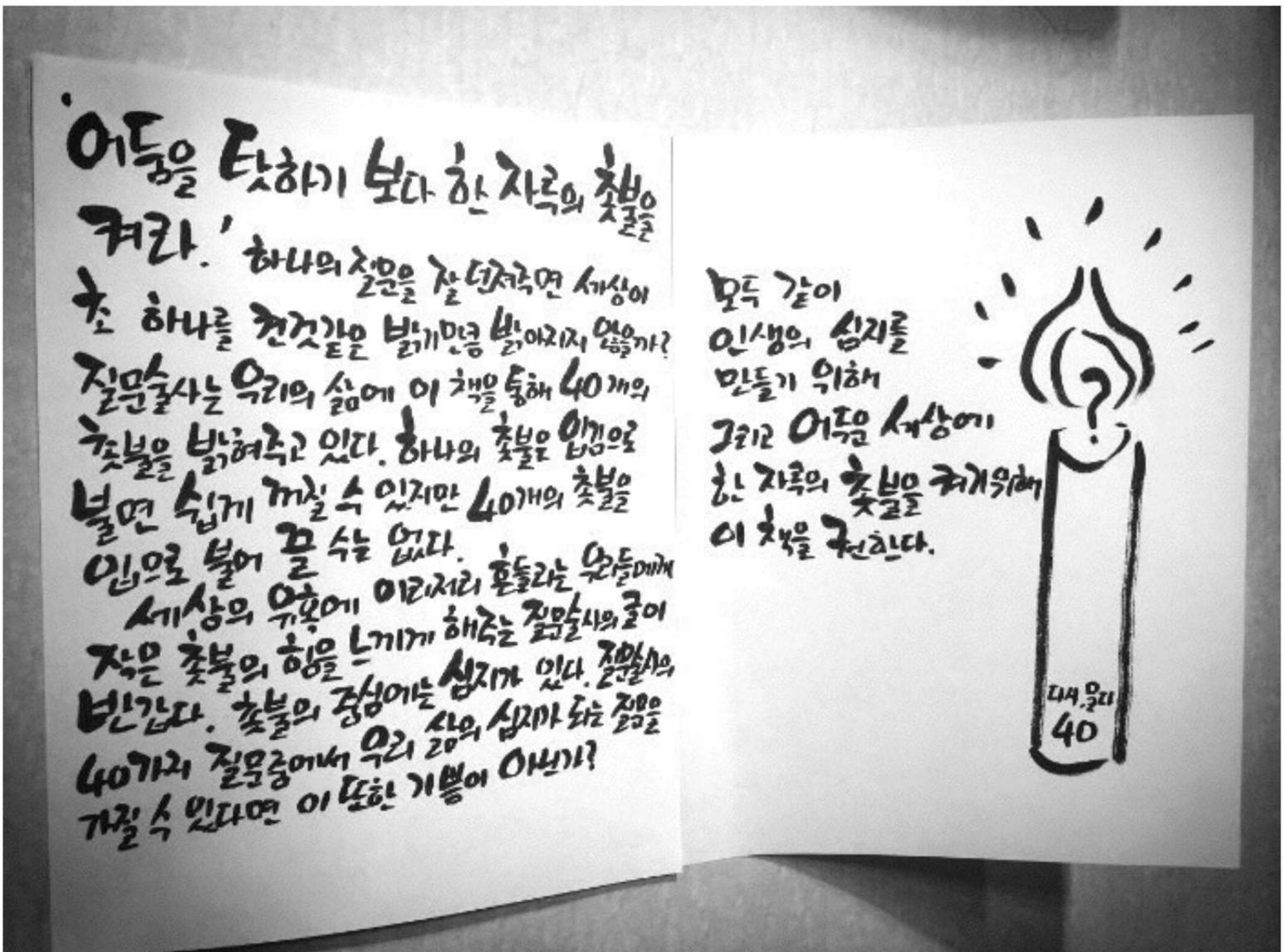
홍현호 \_ 올림수학학원 부원장

'어두움을 타하기 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하나의 질문을 잘 던져주면 세상이 초 하나를 켜듯같은 밝기만큼 밝아지지 않을까? 질문술사는 우리의 삶에 이 책을 통해 40개의 촛불을 밝혀주고 있다. 하나의 촛불은 입김으로 불면 쉽게 꺼질 수 있지만 40개의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끌 수는 없다.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작은 촛불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질문술사의 글이 반갑다. 촛불의 중심에는 심지가 있다. 질문술사의 40가지 질문중에서 우리삶의 심지가 될 수 있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모두 같이 인생의 심지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한 자루의 촛불을 켜기위해 이 책을 권한다.





황규태 \_ 타피루즈그룹 대표

질문의 위력은 대단하다. 조사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이번에 박영준 소장은 또 다른 위력 하나를 들고나왔다.

시(詩)

압축의 묘미, 서사의 묘미 그리고 애절함의 묘미등이 40편의 시에 담겨져 있다. 40편의 시는 불혹이라는 나이의 저자와 불혹을 건너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불혹을 거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한 편 한 편의 시가 모두 박영준 소장의 경험담과 성찰이 담겨져 있고 또한 애환도 담겨져 있다.

오래간만에 시를 읽게 되었고 또한 시에 감흥도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시 불혹으로 돌아간다면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

